

碩士學位論文

고등학교 문학교과의 山水詩歌 지도 연구

指導教授 孫 五 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洪 喆 和

2000年 8月

고등학교 문학교과의 山水詩歌 지도 연구

指導教授 孫 五 圭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 年 6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洪喆和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 年 7 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고등학교 문학교과의 山水詩歌 지도 연구

洪喆和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五圭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길러서 전통적인 산수시가의 아름다움과 산수관을 이해하는 감상 능력을 함양하고 총체적인 문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고전시가 이론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고등학교 문학교과는 교사 중심의 지도로 작가와 작품의 대략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어휘의 주석적 설명을 통한 주제를 파악하는 정도의 다소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고전문학 학습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여 교사와 학생간에 정서의 공유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문학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학교과 수업 방안으로 기본적인 이론교육 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 있어서 사대부들의 자연관에 대한 개관의 지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수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대부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 양상을 먼저 이해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의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을 노래한 시가들을 당쟁이라는 사회적·정치적 사건과 결부시켜 현실 도피적인 유희적 성격으로만 보는 도식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성리학 이념의 실천이라는 복합적인 시각에서 고전시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조 정치·사회적 환경과 연계한 지도가 필요하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귀거래 동기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시가 반영 양상도 致仕 후의 閑適과 黨爭 下의 明哲保身·賢者避世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고등학교 문학교과의 산수시가 지도에서는 산수생활이란 소재의 공통성으로 인해 일률적이고 도식화된 ‘안분지족’, ‘안빈낙도’ 등으로만 한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귀거래의 양상에 따라 작품을 개별화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조선조 산수시가에 나타나는 사상적 배경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조선조 산수시가의 주담당층인 사대부들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과 미의식이 작품 속에 투영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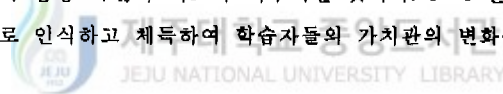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문학적 특색과 작가의 학문정신을 터득하게 되고 작품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 심미적 감상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서 실용적인 교육활동의 하나인 현재의 환경문제와 연계하는 지도의 필요성이다. 이는 문학교육을 통해 현실 인식과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산수시가를 통해 사대부들의 산수애호 정신과 안빈낙도라는 삶의 자세를 체득하게 하여 자연 파괴 및 자연 훼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즉 자연의 소중함과 무절제한 물질 소유욕에 대한 각성과 비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다섯째, 18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산수시가의 학습목표와 학습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는 무엇을 지도의 중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것은 교과서마다 독창적이고 보편적인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제시한다는 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수시가 지도의 주요 사항을 파악하고, 앞에서 제기한 조선조 정치·사회적 환경, 성리학적 배경,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양상 등의 문학외적인 요소와 실용적 차원인 환경 문제와 연계한 교육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위의 지도 방향을 바탕으로 산수시가를 지도하면,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창안하고 강구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려는 관점에서 고전시가의 전체적인 흐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흥미와 의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심미적 감상 차원의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체득하여 학습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國文抄錄>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방법	1
2. 선행연구 검토	6
II. 자연 인식	10
1.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10
2. 자연 인식과 작품 분석	19
(1) 退溪의 <陶山十二曲>	20
(2) 丁克仁의 <賞春曲>	32
III. 지도의 기본 방향	40
1. 정치·사회적 상황과의 연계	40
2. 사상적 배경과의 연계	46
3. 환경 교육과의 연계	53
IV. 지도의 실제	65
1. 학습목표와 학습활동 요소	65
2. 수업 절차 모형	70
3. 교수·학습 모형 구안	74
V. 결론	81
참고문헌	85
Abstract	89
부록	92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고전문학 교육은 국어 교육, 그 가운데에서도 문학교육이라는 범주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고전시가 교육은 고전소설 교육과 더불어 고전문학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고전시가의 발생과 기원은 민족의 삶과 그 맥을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동시에 여러 계층의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양식의 시가들이 산출되었다. 즉 우리 민족사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문학사의 큰 줄기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므로 고전시가 속에는 우리 민족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자연관 등이 용해되어 있다. 즉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녹아 있다.

고전문학 교육은 왜 필요한가. 선인들이 살았던 시대적 환경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것은 고전 작품과, 작품을 감상하는 현대의 감상자 사이의 역사적 거리를 좁히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고전문학 교육 목표인 '문화 전달과 창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고전문학의 토양 위에서 현대문학의 창조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바탕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문학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식의 중요한 산물인 고전시가는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도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의 목표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고등학교 문학교과는 교사 중심의 지도로 작가와 작품의 대략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어휘의 주석적 설명을 통한 주제를 파악하는 정도의 다소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고전문학 학습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여 교사와 학생간에 정서의 공유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문학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학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문학 일반과 한국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나 문학작품을 즐겨 읽고 감상하게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게 한다.

다 한국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세계 문학 속에서의 바른 위상과 방향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길러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문화를 고양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전시가 교육은 위의 조건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위의 고전문학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고전시가 교육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하나는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창조적인 체험', '미적 감수성' 교육을 통해 고전시가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학습자들이 느끼고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 '문학적 문화의 고양'이라는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다. 이로 볼 때,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또 학습자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고전문학 교육의 지향성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고전시가 중에서도 조선조 산수시가¹⁾로 범위를 한정하여 지도상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조선조 산수시가의 대부분은 사대부들의 시조와 가사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시조와 가사 지도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 있어서 사대부들의 자연관에 대한 개관의 지도

1) 손오규는 산수문학이란 자연을 소재로 삼아 산수애호 정신에 입각하여 산수미를 형상화한 詩歌와 문학작품을 의미하며 江湖歌道類는 물론, 성리학적 理念을 自然美로 형상화한 작품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손오규(1994), 『山水文學研究』, 부산대학교 출판부, p46)

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수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대부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 양상을 먼저 이해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의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을 노래한 시가들은 모두 당쟁이라는 사회적·정치적 사건과 결부시켜 현실 도피적인 유희적 성격으로만 보는 도식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성리학 이념의 실천이라는 복합적인 시각에서 고전시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조 정치·사회적 환경과 연계한 지도가 필요하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귀거래 동기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시가 반영 양상도 致仕 후의 閑適과 黨爭下의 明哲保身·賢者避世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고등학교 문학교과의 산수시가 지도에서는 산수생활이란 소재의 공통성으로 인해 일률적이고 도식화된 ‘안분지족’, ‘안빈낙도’ 등으로만 한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귀거래의 양상에 따라 작품을 개별화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조선조 산수시가에 나타나는 사상적 배경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조선조 산수시가의 주담당층인 사대부들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세계관과 미의식이 작품 속에 투영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문학적 특색과 작가의 학문정신을 터득하게 되고 작품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 심미적 감상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서 실용적인 교육활동의 하나인 현재의 환경문제와 연계하는 지도의 필요성이다. 이는 문학교육을 통해 현실 인식과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산수시가를 통해 사대부들의 산수애호 정신과 안빈낙도라는 삶의 자세를 체득하게 하여 자연 파괴 및 자연 훼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즉 자연의 소중함과 무절제한 물질 소유욕에 대한 각성과 비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시가 교육의 현실은 교사 중심의 지도로 작가와 작품의 대략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어휘의 주석적 설명을 통한 주제를 파악하는 정도의 다소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고전문학 학습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여 교사와 학생간에 정서의 공유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문학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고전문학을 학습하는 목적 의식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교육이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고등 수준의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아울러, 예술로서의 문학이 지닌 심미적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²⁾이다. 또 문학교육은 문학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돕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삶의 체험을 풍부하게 맛보게 하여 이를 통하여 상상력과 통찰력을 길러 참된 인간을 만드는 일³⁾이다 이로 볼 때 문학교육의 중요성은 실로 그 위상이 자못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상황은 교육 과정상에 나타난 고전문학 교육의 목표인 삶의 총체적 이해와 문학적 문화의 고양과는 동떨어진 교육이 시행되는 실정이다

문학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체계적인 이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감상하는 단계의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체계적인 이론 교육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의 환경 문제와 연관시킨 실용적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양상과 산수시가의 형성 요인인 조선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찰, 당대 사회의 사상적 배경인 성리학적 이념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 그리고 문학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퇴계의 「陶山十二曲」과 丁克仁의 「賞春曲」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산수시가를 감상하는 안목을 길러주며, 아울러 현실의 환경 문제와 연계한 지도를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실제 지도 차원의 교수·학습 모형의 제시를 통해 조선조 山水詩歌 지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부(1995),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pp 59~60.

3) 문학교육연구회(1987), 「삶을 위한 문학교육」, p 21

이 연구는 문학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 교육에 대한 지도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즉 학습자들이 문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감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의 배양을 위한 적절한 방법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서 18종 문학교과서를 대상으로 고전시가 중 조선조 산수시가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특히 문학성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 있어서 첫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이질감과 거리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조선시대는 왕조 중심 사회이며, 유교가 지배했던 농경중심의 사회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인의 인격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富의 축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이다. 그러므로 가치관이나 윤리관, 자연관 등의 차이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이다. 이 시대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학 외적인 요소인 조선시대의 정치·사회·사상적 배경과 자연관 등에 대한 지도를 통해 조선조 사대부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접근과 작품의 분석을 병행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둘째, 실용적인 문학교육의 하나인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현대의 환경 문제를 산수시가와 연계시켜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현대인과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관의 차이점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활 속에서 안분지족, 안빈낙도하는 정신적 만족감과 여유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선인들의 삶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무절제한 소유욕의 절제와 자연친화 의식을 고취시켜 현실의 자연파괴 및 환경오염 문제를 각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18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산수시가의 학습목표와 학습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⁴⁾. 이는 무엇을 지도의 중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교과서마다 독창적이고 보편적인 학

4) 부록 참조.

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제시한다는 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수시가에서 지도해야 할 주요 사항을 파악하고, 앞에서 제기한 조선조 정치·사회적 환경, 성리학적 배경,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양상 등의 문학 외적인 요소들과 연계시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업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Ⅱ장에서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 양상을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을 시도한다. 문학성이 뛰어나고 문학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陶山十二曲」과 「賞春曲」을 분석하여 미적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산수시가를 감상하는 안목을 길러주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귀거래 동기와 자연미 발견의 요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조선조 정치·사회적 환경과 사상적 배경에서 살펴보고, 작품 분석을 통해 이들의 반영 양상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다. 또한 소재의 공통성으로 인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의 삶을 ‘致仕客의 閑適’과 ‘黨爭下의 明哲保身’으로 창작된 작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어떤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하는 점을 살펴 산수시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차별화된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의 환경 문제를 산수시가에 반영된 사대부들의 가치관과 동·서양의 자연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개인적 삶의 고양과 공동체 통합의 기능 그리고 문학 활동의 문화적 실천 활동’이라는 문학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이론적 체계와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학습목표와 학습 활동 요소를 연계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업 절차 모형과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 고전문학 교육 연구는 고전문학 교육 일반에 관한 연구⁵⁾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제재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그 문제

점을 지적하는 방향의 다양한 논의⁶⁾가 있어 왔다. 또한 고전시가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대부분 고시조와 가사 장르 전체를 포괄하는 지도 방향의 논의이거나, 작품론 쪽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고전시가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계 있는 연구 성과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논의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심혜숙은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들을 형태·주제·작가·시대별로 분류하여, 형태면에서는 평시조 중심, 주제면에서는 유교 사상을 담은 도덕 교훈류의 시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작가는 주로 상류 계층에 한정하여 수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어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고시조 학습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⁷⁾

유부귀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시조 작품의 수록 현황을 파악하여 자연, 애정, 효성, 훈민, 인생 무상 등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그는 질문지법을 통해

-
- 5) 고창식(1980), "고교 고전교육의 문제점", 『어문 연구』 25·26호, 일조각.
 김기창(1989), "고전문학교육론(1)", 『야천 이병호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김진영(1991),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고전교육의 중요성", 『이중언어학회』 제8호, 이중언어학회.
 김홍규(1992), "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봄호, 한신문화사
 이상익 외(1994),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 6) 강분복(1986), "고등학교 고전교과서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복희(1987), "고등학교 고전교과서의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성길(1988), "고등학교 고전문학 교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장계근(1988),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동수(1977), "고전 교과서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고전 지도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광수(1987), "고등학교 고전문학 교재의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조대현(1989), "고전문학 교과서의 흐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연희(1986), "현행 고전문학교과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7) 심혜숙(1988), "고시조 학습지도의 문학교육론적 접근—고등학교 국어 I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사들의 고시조 교육 실태 및 학생들의 고시조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고시조는 미적 특성을 전달하는데 교육적 의의가 있으며, 전승 교육, 가치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⁸⁾

장용진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를 분석하여 시조의 운율 구조와 주제 구조의 연관성을 살폈다. 시조의 운율 구조에서는, 시조가 창으로 존재했었다는 사실과 율격적 기대감에 의해 운율 구조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시조 율격의 설명 원리였던 자수율을 비판하고 기준 음절수를 근거로 한 음보율적 설명이 자료의 해석을 왜곡해 왔음을 주장하였다.⁹⁾

전해연은 가사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과 작가 의식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교육과정에 따른 각각 교과서들의 편찬 체계를 검토한 후 유가 사상과 가사 작품과의 관련성 지도가 중요하며, 가사 교육은 요소 분석보다는 주제론적 접근이나 문학사적인 학습 단계에서 감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¹⁰⁾

조현덕은 고전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험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그는 속요와 고시조를 대상으로 교과서 수록 작품을 열거하고, 이를 교사—학생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 인지도를 확인한 다음, 바람직한 학습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의 효과를 다시 질문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별 과제학습과 집단도의 과제학습을 병행하여 본시 고전학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¹¹⁾

장대수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충군, 자연, 이별, 인륜, 송축으로 주제를 분류했다. 사상은 유교의 충효 사상이 중심이 되며, 작가층도 주로 양반

8) 유부귀(1988), “고시조 감상을 통해 본 중학생들의 의식구조 연구—바람직한 고시조 지도 방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9) 장용진(1991), “시조문학의 구조 연구(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0) 전해연(1991), “가사교육에 관한 연구—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1) 조현덕(1983), “고전시가학습지도에 관한 연구—학력신장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계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창작 시기도 선조—영조 때라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감상 위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²⁾

이대구는 고시조 지도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지도 실태를 분석한 다음, 고시조의 교수·학습 활동 전반에 걸쳐 문헌자료를 분석·체계화하여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사는 고시조 학습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재 선정은 특정 계층의 제한된 이념이 반영된 작품보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있는 작품을 다양하게 선정, 조직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학습 지도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제의 발견과 해결 과정을 통해 사고력 신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가는 정의적 평가 영역과 관찰 및 실기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이상에서 고전시가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연관된 논의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는데,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의 기본 방향과 새로운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논문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손오규의 「산수문학연구」와 「산수미학탐구」, 기타 논문의 연구 결과¹⁴⁾를 인용하여 자연 인식과 지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필자 나름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2) 장대수(1984), “고시조 교육의 실태와 지도법에 관한 연구—제주도 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3) 이대구(1987), “고시조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국어Ⅱ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4) 손오규(1994), 앞의 책

손오규(1998), 「山水美學探究」, 부산대학교 출판부

손오규(1998), “陶山十二曲의 심화과정 교과지도의 방향”, 「퇴계학 논총」,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손오규(1998),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백록어문」14집, 백록어문학회.

손오규(1999), “歌辭의 문학교과지도 視點 ; 상춘곡, 사미인곡, 우부가를 중심으로”, 「백록어문」15집, 백록어문학회.

Ⅱ. 자연 인식

1.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서 사대부들은 산수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초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사대부들의 자연관을 파악하지 않고는 산수시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사상적 배경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산수시가 지도에서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양상을 파악하는 일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가. 이는 현대인들의 자연관과 당시 선인들의 자연관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현대인들은 자연을 경제적 측면 내지는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한 일회적인 유희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역사적 거리감으로 인해 조선조 산수시가를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산수시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양상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陶南이 주창한 江湖歌道에 나타난 자연 양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國文學에 나타난 個個의 自然이란 元體 그 폭이 좁기도 하였지마는, 그가 가지는 美的 價値란 것은 本是 充分히 理解되지는 못하였다. 萬 · 理解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꽃이요 나무라는 그 個個의 特定한 美가 아니라 꽃 · 般 나무 一般에 對한 美일 것이다 (중략) 대자연이라고 할지라도 勿論 하나 하나의 自然은 모두 大自然이란 하나에 吸收되어 이미 그 獨立的인 存在의 價値를 잃어버리고 (중략)

여럿이 모여서 된 새로운 큰 美에 調和되고 있다. 卽 個別的인 自然은 그 本來 美가 없었던 바도 아니지마는 다른 여럿과 한데 녹아 들어 새로운 큰 美를 創造하였는데, 그 美는 本來의 個別的인 美에 勝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美는 一時的인 것이 아니고 永遠한 것이다. 萬 · 거기에 人爲的인 것이 加하여 있다 한다면 오늘은 비록 아름다울지언정, 來日은 그것이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러한 데에 美를 느끼지는 않았다 먼저 꽃을 사랑하여도 具體的 꽃 하나 하나에 美를 느꼈다는 것보다 꽃 一般의 美를 느꼈고, 봄을 즐겼으며 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현상에 美를 느꼈다는 것보다 跳躍하고 있는 봄 그 白體를 즐겼다는 것도 곧 그것을 意味하는 것이니, 꽃 一般 봄白體는 決코 一時的인 것이 아니고 永遠한 것이다. (중략) 永遠한 自然을 그대로 즐기면서 自然間에서 절로절로 자라난 몸을 그 自然 가운데 던져 自然과 더불어 절로절로 늙어 가리라 하는 것이 우리 民族의 自然觀이요, 同時에 自然을 理解하는 方式이 되었다¹⁵⁾

논의를 요약 정리하면, 국문학에 나타나는 자연의 미는 景物의 개별적인 미가 아닌 개개의 경물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일반미로서 대자연의 미를 의미한다. 대자연의 미는 일시적인 미가 아닌 영원성을 내포한다.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대자연과의 조화로움 속에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양상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동영은 壘巖의 경우 隱逸, 高踏的 사상, 鑑戒思想이 아닌(당쟁하의 도피가 아닌) 致仕客의 閑適으로 浩然한 자연을 즐기고 또 그 가운데 몰입하여 들어가 참다운 자연미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 어부에 假託하여 자연생활의 樂을 추구하였다 즉 농암 시가의 자연은 致仕閑居하는 생활중의 自然之樂¹⁶⁾이라고 했다.

허남춘은 퇴계의 경우 자연과의 화합을 중요시하면서 고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연은 '본연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山水樂은 '심흥을 활짝 열어주고 정신을 말끔히 씻어주는, 性情을 기르는 한 가지 일이 된

15) 조윤제(1984), 「국문학개설」, 탐구당, pp.400~415.

16) 李東莢(1998), 「朝鮮朝 嶺南詩歌의 研究」, 부산대학교 출판부, p 104.

다.('李子粹語')라고 하였다. 즉 자연의 性を 본연의 것으로 인식하여 자연을 수양의 매개로 선택하여, 그 본연의 性を 통하여 存養省察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울곡은 幽閑한 것을 즐기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갖추고 있는 예사로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연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道體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¹⁷⁾고 했다.

여기현은 <도산십이곡>계통의 강호인식 양상은 강호를 관념[道體, 載道]의 매개체로 인식했고, <고산구곡가>계통의 작품은 강호를 심미의 대상으로 즉 순수한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어부사시가>계통의 작품은 한적의 대상으로 즉 致仕客이 유유자적하는 생활의 공간이며,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¹⁸⁾고 하여 세 갈래로 분류하였다.

오창호는 孤山은 강호 공간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물외한적의 풍류 공간으로 즐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현실과 이상 세계를 향한 갈등 표출의 통로로 인식하였다. 즉 세속과 초세속을 두고 '인정 - 부인'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 심리적 상태를 강호 공간에 의탁하여 표출하는 작품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¹⁹⁾고 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자연의 인식 양상은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성리학적 이념을 궁구하는 매개체, 둘째, 致仕客의 閑適의 공간, 셋째, 審美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오규는 조선조 사대부 시가에 나타난 자연의 양상을 退溪型의 理念의 表象, 韞巖型의 自足的 空間, 孤山型의 唯美的 形象으로 분류하였다²⁰⁾ 이는 위에 제시한 견해와 유사한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손오규의 자연 인식 양상을 원용하여 작품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退溪型의 자연 인식 양상인 '理念의 表象'이다.

17) 허남춘(1999), "士林派 詩歌에 나타난 자연관과 서정", 「조선조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반교어문학회 편, 보고서, p 133.

18) 여기현(1999), "江湖認識의 한 樣相", 「조선조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반교어문학회 편, 보고서, pp.143~144.

19) 오창호(1991), "尹善道의 <漁父四時詞>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71.

20) 손오규(1994), 앞의 책, p 350.

尼丘에 日月불가 陋巷에 비취었다.

浴沂春風에 氣象이 었더턴고

千載에 喟然嘆息하시던소리 귀에 ㄴ득 ㅎ여라.

(張經世, 江湖戀君歌, 後一曲)

이 시의 작가는 沙村 張經世(1547~1615)이다. 本貫은 興城이며, 父는 張健으로 衞수를 지냈다. 그는 23세에 中榜 문과에 급제하여 金溝 縣令을 지냈다. 그의 沙村集에는 이 작품이 퇴계의 陶山六曲을 본받은 江湖戀君歌(效退溪先生陶山六曲江湖戀君歌)라고 병서되어 있다. 그의 나이 66세에 지은 것이다. 이로 볼 때 沙村은 '도산십이곡'의 형식과 퇴계의 정신까지 흠모하고 효방하여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초장은 소박한 산수생활을 표현한 것으로 「도산십이곡」에 나오는 '草野愚生'과 '泉石膏肓'에 비견되는 삶의 모습이다. 자연 속에서 물욕과 명리를 벗어나 유유 자적한 심경 속에서 정신적 자유로움을 누리는 삶이다. 이런 생활을 통해 체득한 것이 중장의 '浴沂春風의 氣象'이다. 이는 맑고 깨끗한 선비의 정신 세계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런 생활 속에서 성현의 학문을 배우고 익혀 몸소 실천하려는 자기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종장이다.

窓前에 풀이 ㅍㄹ고 地上에 고기 뛰다.

一般生意물 아늑이 ㄴ 뒤런고

어즈버 光風霽月坐 上春風이 이제로 온듯 ㅎ여라.

(張經世, 江湖戀君歌, 後二曲)

초장은 자연의 약동하는 생명력을 감지하고 있다. 즉 창 앞의 푸른 풀과 못에서 뛰노는 고기를 보고 理의 세계를 감득하고 있다. 즉 산수경물을 통해 대자연의 생명 질서의 세계를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장이 '一般生意'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작가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산수생활을 통해 세속적 이욕에서 벗어나 자연의 이법을 궁구하고 성현의 학문을 연구하며 성현의 가르

침을 몸소 실천하는 평범한 선비의 삶을 의미한다. 종장의 '光風霽月'은 「도산십이곡」에 나오는 '魚躍鳶飛 雲影天光'과 동일한 시각에서 파악되는 세계로, 대자연의 정연한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지극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의미하며, 이는 성리학이란 학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세계이다

丈夫의 몸이되어 飢寒을 들리것가
一山風月에 즐거움이 2이업다
니마다 浮雲富貴을 싹을줄이 이시라.
(張經世, 江湖戀君歌, 後五曲)

이 시의 작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범한 선비로서 산수간에 묻혀 정신적인 자유로움과 심적인 여유로움 속에서 성현의 학문을 연구하고 자연의 이법을 터득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생활을 풍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장에서 뜬구름과 같은 세속적 이욕인 물욕과 명예욕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무욕의 심경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沙村은 자연을 성리학적 이념의 표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강호연균가는 퇴계의 「도산십이곡」을 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壘巖型의 자연 인식 양상인 '自足的 空間'이다.

이등에 시름업스니 漁父의 生涯이로다.
一葉扁舟를 萬頃波에 띄워두고
人世를 다 니짓거니 날가는 줄로 알가.
(李賢輔, 漁父短歌 一)

李賢輔의 字는 裴仲이고 號는 壘巖이며 본관은 永川으로 安東 禮安縣 汾川里 사람이다. 서기1467년(世祖 13년)에 태어나 1555년(明宗 10년)까지 살았다.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才智가 뛰어나고 骨相이 비상하였다. 32세(연

산군 4년)에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史官·檢閱을 거쳐 38세 때 正言이 되어 書筵官의 非行을 탄핵했다가 안동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다시 持平에 복직되어 동부승지·부제학·경주부윤·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76세 때 호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은퇴를 결심하고 낙향했다. 향리에卜居하기 10년 후에 명종의 부름을 받았으나 거절하였으며, 知中樞府事가 되었다.²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농암의 생애는 생존 시기에 소위 四人士禍가 모두 들어있던 시기인데도 평탄한 宦路 生活이었음을 알 수 있다. 孤山의 유배와 정치적 좌절의 歷程과는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위의 시가는 농암의 致仕 후 「漁父歌」를 개작하여 지은 것이다.

초장은 어부생활의 한가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치사 후 자신의 세속적인 이욕에서 벗어난 白樂의 심정을 어부의 삶에 寄託하고 있는 假漁翁의 삶으로, 산수생활에 대한 자족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중장과 종장은 초장의 어부의 생활을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즉 관리로서의 번잡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심리적 갈등이 전혀 없는 평안한 상태에서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 정신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감정이 아래 詩에서는 無心の 경지로 이어지고 있다.

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

十丈紅塵에 언제나 ㄴ렛는고

江湖에 月白호거든 더욱 無心호애라

(李賢輔, 漁父短歌, 二)

초장은 세속에서 벗어난 한가하고 여유로운 마음의 상태에서 접하는 산수경물 묘사로 敍景이다. 즉 산수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단계인 것이다. 중장은 자신이 생활하는 산수공간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며 심정적으로는 속세와의 거리감을 인식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塵埃와의 심정적 거리감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종장에서 '無心'의 경지로 나타나고 있다. 달빛이 온 산과

21)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編(1986), 「국어국문학사전」, p.524 참조.

강을 비취 너무나 순백한 세계, 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느끼는 심정이 곧 '무심'인 것이다. 무심은 세속적 가치와功利성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교유 속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無慾'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무욕의 경지는 다음 시에도 나타나고 있다.

靑荷에 뉘뉘보고 綠柳에 고기베어

蘆荻花叢에 비미야 두고

一般淸意味를 어늬부니 아락실고.

(李賢輔, 漁父短歌, 三)

초장은 무욕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靑荷에 밥을 싸고 綠柳에 고기베어 행위'는 생활인으로서의 어부의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 생활인으로서의 어부는 삶의 방편으로 재화 획득이라는 욕망으로 낚시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낚시하는 노동 속에는 갈등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위의 시에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 몇 마리 고기를 낚는 행위를 통해 심정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돌아오고 있다. 假漁翁의 생활로 욕심이 없는 경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신의 삶을 종장에서 '一般淸意味'로 표현하고 있다. 이 때 '一般'은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삶으로 사대부에게는 벼슬이라는 명리를 벗어난 삶을 의미한다 '淸意'는 물욕을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경지를 뜻한다. '味'는 '一般淸意'에서 오는 '삶의 맛' 즉 '삶의 멋'으로 '풍류 생활'을 의미하는 것²²⁾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시는 산수생활을 통해 세속적인 명리와 물욕에서 벗어난 무욕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생활의 멋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농암의 자연 인식 양상은 퇴계형의 성리학적 이념의 표상과는 거리가 있다. 山水遊賞 속에서 자족을 느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孤山型의 자연 인식 양상인 '唯美的 形象'이다.

22) 손오규(1998), 앞의 책, pp.86~87

孤山은 유배와 정치적 좌절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른 타율적인 귀거래로 인해 현실적 불만과 심리적 갈등을 토로하고 있다. 그의 산수생활은 겉으로는 어부생활의 한가로움과 自樂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속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이상향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작품을 통하여 고산의 자연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醉吟야 누었다가 여홀아래 누리려다
落紅이 흘러오니 桃源이 잣잡도다
人間紅塵이 언제나 ㄴ렸느니.

(尹善道, 漁父四時詞, 春八)

취하여 누웠다가 일어나 낙홍이 흘러오는 여홀을 바라보며 도연명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상상한다. 곧 자신의 생활공간을 신선의 세계인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의 反對給付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기존의 세속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식으로 그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수 없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관념적으로라도 성취하려는 의식의 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하는 공간을 세속과 단절된 이상적인 세계로 사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심리는 고산으로 하여금 자연을 감상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산수애호를 통해 산수경물 자체의 속성과 본래적 모습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어 자연을 유미적 형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자연 인식은 다음 시에도 나타나고 있다.

간밤의 눈길後의 景物이 달났고야
압희는 萬頃瑠璃 뒤희는 千疊玉山
仙界ㄴ가 佛界ㄴ가 人間이 아니로다

(尹善道, 漁父四時詞, 冬四)

눈 은 후의 산수경물의 변모를 미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유리처럼 맑고 깨끗

하며 옥처럼 고운 세계, 이런 세계가 신선의 세계나 부처의 세계가 아닌가. 고산은 자신의 생활공간을 塵埃가 존재하지 않는 순백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 초월적 세계인 이상향으로 인식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황홀경 속에서 세속적 가치나 물욕의 경지를 초월하고 있는 충만감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산수경물의 아름다움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고산은 점점 더 자연에 몰입하게 되고 산수애호 정신으로 발전하게 된다.

네버디 몇치냐호니 水石과 松竹이라
 동산의 들오르니 괴더옥 반갑고야
 두어라 이다솟밭괴 또더호야 무엇호리.
 (五友歌, 序詞)

최진원은 「五友歌」에서 ‘오우’인 水·石·松·竹·月을 不斷·不變·不屈·不欲·不言이라 하여 고산의 자연의 규범성을 ‘山水의 樂’이라고 했다. 孤山은 오우의 규범성을 관념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실의 좌절은 현실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다. 그러므로 관념 속에서 풀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³⁾ 이는 오우의 속성을 재인식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연의 규범성을 통해 자연미를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고산은 자신의 산수생활을 이상의 실현이며, 또 생활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이상향으로 사유함으로써, 자연을 유미적 형상으로 인식하여 자연의 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 정리하면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양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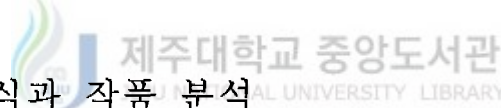
- 1) 退溪型의 ‘理念의 表象’이다. 자연을 성리학적 이념을 궁구하는 매개체로 인식하여 居敬窮理하는 학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세계로, 자연지성과 본연지성의 합일을 통하여 자신을 存養省察할 수 있는 至善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
- 2) 龍巖型의 ‘自足的 空間’이다. 산수생활을 통해 세속적 가치인 명리나 이욕을

23) 崔珍源(1986),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65.

떠난 무욕의 심정에서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 정신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3) 孤山型의 '唯美的 形象'이다.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른 정치적 좌절이라는 현실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활 공간을 관념적인 이상향으로 설정하여 자연을 감상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산수애호를 통해 산수경물 자체의 속성과 본래적 모습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어 자연을 유미적 형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선조 산수시가를 지도함으로써 학습자들은 현대인의 자연 인식 양상과 선인들의 자연 인식 양상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을 노래한 시가들은 모두 당쟁이라는 사회적·정치적 사건과 결부시켜 현실 도피적인 유희적 성격으로만 보는 도식화되고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시각에서 고전시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조 산수시가의 미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고 심미적 감상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연 인식과 작품 분석

위에서 조선조 사대부 시가의 자연 인식의 세 가지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孤山의 시조를 통해 唯美的 形象을, 龔巖의 시조를 통해 自足的 空間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경세의 시조를 통해 退溪型의 理念의 表象과 「도산십이곡」이 후대 시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조 시가는 시조와 가사로 대표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산수시가 중 시조 장르에서는 퇴계형의 「도산십이곡」, 가사 장르에서는 농암형의 「상춘곡」을 선정하여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조 작품 중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성리학적 이념을 담고 있는 산수시가의 전형적인 작품이며, 정극인의 「상춘곡」은 가사 작품의 효시로 후대 가사 작품의 전형으로 농암형의 자족의 공간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분석하여 산수시가 지도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孤山

의 시조는 앞절과 제Ⅲ장 1절에서 분석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 退溪의 <陶山十二曲>

退溪 李滉은 서기 1501년(燕山君 七年) 11월 25일 慶北 禮安縣 溫溪里에서 태어나 서기 1570년(宣祖 三年) 12월 8일 세상을 떠났다. 字는 景浩이고 諡號는 文純이다. 퇴계의 생애는 三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第一期는 修學期로서 출생에서 出仕 직전인 서기 1501년부터 1534년까지이다. 퇴계는 이때부터 학문 대성의 자질을 발휘하였다. 그 예로 12세 때 숙부 松齋公에게 논어를 배우다 理에 관한 질문을 하여 ‘持門所者必此兒也’라고 칭찬을 받았다. 1523년 大學에 들어가 1527년 경상도 향시 進仕試에 수석하고 생원 二位가 되었다. 1533년 泮宮에 유학하여 1534년 3월 급제하고 출사의 길이 트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퇴계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대한 열성이 대단했던 것 같다.

第二期는 出仕期로서 1534년부터 1549년까지라 할 수 있다. 그의 출사 동기는 자신이 표명했듯이 가업을 이어 가문을 보존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돕기 위함이라 했다. 그래서 출사 이후 어릴 때 막연했던 학문 정진을 위한 산수생활에의 동경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第三期는 1549년 49세로부터 陶山生活期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시기는 성현의 학문에 전일하던 시기였다. 48세 때의 단양 군수나 풍기군수는 그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京職에서 외직으로 물러난 것이다. 이 때부터 그는 정계에서 물러날 결심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러한 근거는 49세인 明宗 4년 9월 풍기군수 사임으로부터 70세 되던 선조 삼년 ‘乞致仕狀’을 올리기까지 21년 동안 무려 53회의 辭退願을 임금께 올렸다.

이상에서 볼 때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대한 열의가 특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사 후에도 산수생활을 통해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신념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로 볼 때 그의 뜻은 仕宦에 있지 않고 학문에 있었으며, 그의 진의는 주자학의 대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생애는 학문완

성이 목표였으며, 학문을 통하여 터득한 道를 실천한 도학자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도학자로서의 삶이 그의 시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산십이곡」은 山水詩이다. 동시에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국문학 작품 중에서 자연묘사의 도구인 듯한 정도로 자연미를 구가하는, 조선조 중엽의 道學을 배경으로 하는 시조로서 전형적인 작품이다.²⁴⁾ 陶南도 이 작품에 대하여

前後 兩曲을 통하여 不過 十二曲에 지나지 못하지마는 退溪先生의 人格을 통틀어 낸듯한 溫恭優雅 實로 古道學者의 崇高한 人格에 接하는 듯한 感이 있는 道學者 詩歌의 代表的 作品이요, 또 一般詩歌 中에서도 秀出한 作品이다.²⁵⁾

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도산십이곡」은 조선조 산수시가를 지도하는데 가장 적절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하여 조선조 유학자 시가의 전형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수시가의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기에 앞서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는 「陶山十二曲跋」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이 '도산십이곡'은 陶山老人(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 시조를 지은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와(淫蛙)하여 죽히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저 '한림별곡'과 같은 류는 문인의 구기(口氣)에서 나왔지만 긍호(矜豪)와 방탕에다 설만(褻慢)과 희압(戲狎)을 겸하여 더욱이 군자로서 숭상할 바 못 되고, 다만 근세에 이별(李鑿)이 지은 '육가'(六歌)란 것이 있어서 세상에 많이들 전한다. 오히려 저것[육가]이 이것[한림별곡]보다 나을 듯하나, 역시 그 중에는 완세(玩世) 불공(不恭)의 뜻이 있고 온유 둔후(溫柔敦厚)의 실(實)이 적은 것이 애석한 일이다.

24) 손오규(1994), 앞의 책, p.48.

25) 조운계(1954), 「韓國詩歌史綱」, 乙酉文化社, p.269.

노인이 본디 음률을 잘 모르기는 하나, 오히려 세속적인 음악을 듣기에는 싫어 하였으므로, 한가한 곳에서 병을 수양하는 나머지에 무릇 느낀 바 있으면 문득 시로써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겠으나, 노래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 이제 만일에 노래를 부른다면 반드시 이속(俚俗)의 말로써 지어야 할 것이니, 이는 대체로 우리 국속(國俗)의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내가 일찍이 이별(李鵬)의 노래를 대략 모방하여 '도산 육곡'을 지은 것이 둘이니, 기 일(其一)에는 '지(志)'를 말하였고, 기 이(其二)에는 '학(學)'을 말하였다.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朝夕)으로 이를 연습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는 궤(兒)를 비겨 듣기도 하려니와,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한편 스스로 무도(舞蹈)를 한다면 거의 비린(鄙吝)을 씻고 감발(感發)하고 융통(融通)할 바 있어서, 가자(歌者)와 청자(聽者)가 서로 자익(資益)이 없지 않을 것이다 (생략)²⁶⁾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당시의 文風과 사대부들의 인생관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담고 있다. 그 예로 「한림별곡」은 「교만하고 호화스럽고 기탄 없이 굴고, 외설스럽고 농지거리하며 버릇없이 군다」[矜豪放蕩, 褻慢戲狎]라고 했다. 또 하나는 「이별육가」는 「세상을 회롱하고 불공한 뜻이 있고」[玩世不恭之意], 溫柔敦厚한 내실이 적다고 하여 潔身傲世을 경계하고 있다. 즉 老莊에 심취하여 세상의 윤리나 규범을 무시한 채 산수에 숨어들어서는 세상을 얕잡아 보면서 마치 자신은 매우 고결하고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만하는 은둔을 의미하는 것이다. 염세적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로 현세적 삶을 등한시하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비판하고 경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학이 심성을 기르는 한 요소로 인식하는 그의 문학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즉 '비린을 씻고 감발하고 융통할 바 있어서' 라고 하여 퇴계의 詩가 수양론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견해는 문학이 사회의 기풍을 세우는 데 지대한 영향력이 있음과 심성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는 방편임을 통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산수생활을 '도의

26) 우한용 외(1995), 「문학(하)」, 두산출판사, pp 249~250 참조.

를 기뻐하고 심성을 길러서 즐기는 사람'(有悅道義 頤心性而樂者)²⁷⁾이라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감동적 효과를 깊이 통찰한 데서 나온 것으로 문학을 道學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문학의 최고 가치를 '溫柔敦厚'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산십이곡」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1) 前六曲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물며 泉石膏肓을 고더 므슴흐료 (前一曲)

초장은 삶의 방식이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벼슬하는 관리로서의 생활과 草野愚生の 생활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하는 성찰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즉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모색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방원이 정몽주의 심증을 헤아려 보기 위해 불렀다는 '하여가'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시구는 위의 시와 어휘 구성면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방원의 시는 현실의 변화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즉 현실의 변화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수정하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퇴계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중장의 초야우생의 삶이다. 즉 자신의 의지의 실천에 의하여 선택한 결과이므로 자기 만족의 감정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장에서는 "고더 므슴흐료"라고 하여 草野愚生の 삶 중에서도 '泉石膏肓의 삶'으로 구체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초야우생의 삶에서 초야는 일반적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를 일컫는 말이며, 우생은

27) 退溪學研究院(1988), 「陶山全書」(영인본), 卷三, 詩, 陶山記, p.41.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초장과 중장이 의미하는 것은 자연에 묻혀 평범한 선비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즐거운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泉石膏肓’에서 ‘泉石’은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며, ‘膏肓’은 몸 속에 생긴 고칠 수 없는 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천석고황은 자연을 깊이 사랑하여 생긴 병으로 육체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이다. 이 병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산수생활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사색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이법을 터득하려는 데서 생긴 고질병이다. 이 ‘泉石膏肓’이 前六曲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퇴계의 지향점은 벼슬을 떠난 평범한 선비로서 자연에 묻혀 자연의 이법을 터득하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시에는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煙霞로 지불삼고 풍월로 버들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니

이듬에 버리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前二曲)

초장은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무욕의 심경에서 느낄 수 있는 소박한 삶의 모습과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연하로 집을 삼는다’는 것은 자연이 연하를 집으로 삼는 것처럼 자신도 자연을 안식처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풍월’은 청풍명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과 벗한다는 것은 맑고 깨끗한 정신을 지닌 삶을 의미한다. 이로 볼 때 퇴계는 자연에 묻혀 물욕이 없는 심경과 정신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송순의 시조 “十年(십년)을 經營(경영)하여 草廬(초려삼간) 지여 내니 / 나 혼 간 돌 혼 간에 淸風(청풍) 혼 간 맛져 두고 / 江山(강산)은 들일 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라는 삶의 방식과 심경이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자연에 동화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삶의 모습이다. 이로 볼 때 중장의 ‘병’은 泉石膏肓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으로, 옛 시조의 「靑山도 절노절노 綠水 | 라도 절노절노/

山 절노절노 水 절노절노 山水間에 나도 절노절노/ 그中에 절노조란몸이 늙기도 절노절노 늙으리라」와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즉 절로절로 된 영원한 자연을 그대로 즐기면서 산수간에서 절로절로 늙어가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종장의 ‘허물없는 삶’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허물없는 삶’이란 세속적인 이욕을 경계하고 선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지키는 삶을 의미한다. 이는 곧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며, 자연의 이법을 통해 성리학이란 학문을 궁구하는 학자로서의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종장은 선비가 지켜야 할 도덕관과 가치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자신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시에는 작가의 교육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淳風이 죽다흐니 眞實로 거즈마리
 人性이 어디다흐니 眞實로 올흔마리
 天下에 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前二曲)



淳風이란 사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순박하고 온후한 풍속으로 미풍양속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충·효·예의 윤리관이 잘 지켜지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성’은 순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품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초장과 중장을 통해서 볼 때 이 사회는 백성들이 잘 사는 안정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를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은 百年大計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퇴계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여, ‘허다영재’를 위한 교육을 자신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도산서당을 지어 영재를 교육하였던 것이다. 즉 후학들에게 성현의 올바른 道를 교육시킴으로써 선비의 기풍을 널리 진작시켜 나라의 장래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관리로서의 삶에 못지 않은 또 다른 면에서 나라를 위하는 일임을 깊이 통찰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 시는 산수생활을 통해 本然之性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幽蘭이 在谷호니 自然이 듣디도해

白雲이 在山호니 自然이 보디도해

이등에 彼美一人을 더욱넋디 몰호애 (前四曲)

‘幽蘭’은 자신의 원래 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깊은 골짜기에 피어서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난초. 맑은 바람을 쐬고, 깨끗한 이슬을 먹고,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白雲’ 또한 자신의 속성을 발휘시켜 주는 산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물이 제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다고 판단하여 ‘듣디도해’, ‘보디도해’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물욕을 벗어난 유유자적한 심경에서 산수생활을 통해 자신의 본연지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자신의 타고난 품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산수라는 삶의 공간 속에서 원래 지닌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산수생활을 종장에서 ‘이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彼美一人’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임금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幽蘭在谷’과 ‘白雲在山’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위치할 곳이 어디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삶을 초야우생의 삶이며 천석고황을 표방하는 삶임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벼슬하는 관리로서의 생활을 떠난 상황으로 부귀공명을 바라는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대부라는 입장에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는 그가 모범으로 삼는 인물일 것이다. 그는 도학자이다. 도학자로서 모범을 삼을 수 있는 인물은 그의 인생목표와 연관된 인물일 것이다. 즉 유교에서 성현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일 것이다. 다음 시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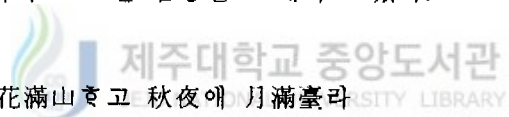
山前에 有臺호고 臺下에 流水이로다

뻘만흔 굴머기는 오명가명 호거든

엇다타 皎皎白駒는 머리마슴 호는고 (前五曲)

초장은 작가의 생활공간 주변의 산수경물을 포괄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증장은 갈매기가 한가롭게 날고 있는 정경을 통해 자신의 산수생활이 세속에 얽매임이 없는 자유분방한 삶의 모습임을 대변한다. '회고 흰 망아지를 의미한다. '회고 흰 망아지가 멀리 마음한다'는 어떤 의미를 함축한 표현인가. 자신의 한가롭고, 자유로운 생활이 宦路에의 욕망을 넘지나 않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경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詩經 小雅 白駒에 나오는 것으로, 나의 발에 돌아나는 농작물의 새싹을 뜯어먹어 농사를 망치게 한다는 내용으로 항시 남의 일을 엿보는 마음을 의미한다.

작가가 회구하는 가치 있는 삶이란 벼슬하는 관리로서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며, 泉石膏肓으로 대표되는 草野愚生의 삶이다. 자연 속에 묻혀서 대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회고 흰 망아지가 멀리 마음한다'는 자신의 목표에 어긋나는 삶에 대해 성찰이며, 동시에 경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조화로운 대자연의 질서를 인식하고 느낀 감동을 노래하고 있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롭과 흥가지라
 흥돌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니그지 이슬고 (前六曲)

초장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봄바람에 꽃이 피어 온 산이 비단을 수놓은 것처럼 곱게 물들고, 가을밤에는 맑고 밝은 달이 온 산을 비추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진한 감동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을 접하고 느끼는 일시적인 정감에서 얻어지는 감각적인 차원과는 다르다. 산수생활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사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의 세계를 인식하고, 그 질서의 오묘함을 깨달은 후에 얻을 수 있는 경지이다. 자연을 단순히 물질의 세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질서에 따라 무궁한 변화를 간직하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때에 가능하다. 이는 자신도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대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대자연이라는 범주에서 통합될 때 느낄 수 있는 경지이다. 그러므로 중장의 ‘四時佳興이 사롭과 혼가지라’라고 노래하여, ‘四時佳景’ 속에서 ‘四時佳興’을 느낀다고 했다. 이런 경지에서 느끼는 감동을 형상화한 세계가 중장의 ‘魚躍鳶飛 雲影大光’이다. 풀이하면, 고기는 못에서 흥에 겨워 뛰놀고 소리개는 날아 올라 하늘 높이 머물며, 비가 개이고 하늘이 맑아지니 그 구름그림자 사이로 하늘의 밝은 빛이 지상에 내리비춘다는 뜻이다. 이는 대자연의 정연한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조화로운 세계를 감득하고 이에 대한 감동을 노래하고 있다. 작가가 바라는 세계는 대자연의 이법에 따라 움직이는 조화롭고 지극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임을 알 수가 있다.

2) 後六曲

犬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簾酒헌디

萬卷生涯로 樂事 | 無窮호애라

이듬에 往來風流를 넘어 므슴홀고 (後一曲)

초장은 도산서당의 주변 경관으로 작가의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도산서당은 도산을 근경으로 세워져 있으며, 원경으로는 靈芝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도산서당 앞을 흐르는 못이 있는데, 이것이 濯纓潭이다. 탁영담은 갓끈을 씻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곳 벼랑의 이름이 천운대이다. 도산서당의 주변 경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퇴계의 정신 세계와 삶의 지향점을 알 수가 있다. 선비로서의 고고한 인품과 깨끗한 정신 세계, 학문에 대한 열정 등을 눈으로 보는 듯 선하다. 완락재는 도산서당 안에 있는 건물의 이름으로 즐거움을 사랑하는 집이라는 뜻이며, 교육하는 장소이다. 중장은 성현의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의 즐거움과 후학을 가르치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중장의 ‘往來風流’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도산서당 주변의 산수유람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고 사색하는 즐거움과 학문연구와 교육활

등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왕래풍류가 후육곡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시는 교육의 중요성을 훈계하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電霆이 破山하야도 聾者는 못듣느니
 白日이 中天하야도 瞽者는 못보느니
 우리는 耳目聰明男子로 聾瞽로디 마로리 (後二曲)

자연현상과 비정상적인 인물을 연관시켜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의 필요성을 노래하고 있는 교훈적 의미를 담은 시이다. 聾者는 귀머거리이고 瞽者는 장님으로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이다.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학문을 연구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농자와 고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무지몽매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연구에 힘써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 시에는 학문연구에 정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古人도 날몰보고 나도 古人몰뵈
 古人을 몰봐도 너던길 알피잇너
 너던길 알피잇거든 아니너고 엇덜고 (後三曲)

이 시는 古人의 길을 흠모하고 따르려는 실천적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은 누구일까. 퇴계가 유학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가에서 성인으로 숭앙받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일 것이다. 그러면 고인과는 어떻게 만나는가. 고인들의 쓴 경전을 통해서 정신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들의 학문 세계를 통해서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경세술을 익히며, 삼라만상에 내재해 있는 이법을 터득하고,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삶에 등불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모범으로 삼고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에도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當時에 녀던 길홀 몇히를 버려두고
어디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되막숨 마로리 (後四曲)

‘당시에 녀던 길’은 학문에 뜻을 세우고 학문 정진에 힘쓰던 길을 의미한다. 중장은 벼슬길에 나아가 잠시 학문을 등한시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뜻한다. 종장은 벼슬하는 관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왜 퇴계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는 당쟁이라는 정치·사회적 현실로 인한 현실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이욕을 벗어나 산수생활을 통해 자연의 이법을 터득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교육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 즉 자신의 인생 목표를 실현하려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 시도 학문 정진에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靑山은 엇데호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어데호야 晝夜에 굿지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라 (後五曲)

퇴계는 산수경물인 청산과 유수를 단순히 감각적 차원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즉 청산과 유수의 본래 속성인 불변성과 유장성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신의 천성을 깨닫게 되어, 자신도 청산과 유수처럼 변함없이,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여 불변의 진리를 터득하겠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즉 자연의 속성을 통찰하고 자신의 천성을 깨달

아 학문 완성에 이르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도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愚夫도 알며호거니 괴 아니 쉬운가
聖人도 묻다호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둥에 늙는주를 몰래라 (後六曲)

초장과 중장에서는 학문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학문 완성에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종장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재주에 따라 진리를 깨닫고 힘써 노력하는 가운데 학문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며 세속의 이욕을 벗어나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퇴계의 생애를 통하여 볼 때,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으며, 出仕 후에도 산수생활을 통해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신념과 의지가 강렬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삶의 지향점은 벼슬길에 나아가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이라는 학문 완성에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도학자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도산십이곡」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陶山十二曲拔」에서 전육곡은 ‘言志’, 후육곡은 ‘言學’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삶의 지향점을 밝힌 것으로 「도산십이곡」 전반에 흐르는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삶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 ‘泉石膏肓’으로 대표되는 ‘阜野愚生’의 삶이다. 즉 벼슬을 떠난 평범한 선비로서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연에 묻혀 자연의 이법을 터득하고, 이를 통해 성리학이란 학문을 궁구하며 성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도학자로서의 삶이다.

이러한 삶을 ‘往來風流’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도산서당 주변의 산수 유람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고 사색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학문 연구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즐거움, 후학들에게 성현의 올바른 道를 깨닫게 하여 나라

의 장래를 대비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퇴계는 자연을 단순한 물질의 세계로 인식하거나 감각적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자연의 질서에 따라 무궁한 변화를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아름다움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리학이란 학문의 바탕 위에서 형성된 것이며, 개개의 경물을 통하여 대자연의 조화로운 세계를 감지하고 대자연의 이범을 궁구하려는 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2) 丁克仁의 <賞春曲>

가사는 조선조 시가문학인 시조와 함께 대표적 장르로 문학적 가치나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크다 고등학교 가사 장르 지도에서 정극인의 <상춘곡>은 기본이 되는 작품에 해당된다.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박병완은 이 작품이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의 첫 작품으로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이어지는 湖南歌壇 형성의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²⁸⁾ 최상은은 <상춘곡>은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고, 자연을 통한 작가의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가사 작품이라 했다. 현실에서 벗어난 작가가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안빈낙도'라는 심리적 평안 상태에 이르는 주제 의식, 그리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미의식이 생동감 넘친 언어를 통해 질서있게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평안하면서도 절제된 미의식은 울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상춘곡>은 처음과 마지막의 대칭적 구조, 시상의 점층적 전개, 기타 문장 길이의 적절한 조절로써 정서의 변화를 미묘하게 표현한 작품²⁹⁾이라고 했다. 한창훈은 고전 작품의 교육이란 측면에서 볼 때, <상춘곡>은 '안빈낙도'라는 내면적 삶의 자세와 넉넉함, 그리고 그 道가 간직한 인문적 가치,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교

28) 朴炳完(1992), “<賞春曲>의 分析的 研究”, 「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pp.603~604.

29) 최상은(1991),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미의식”,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p.98.

류 등의 정서 체험이 내용적 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이룬다.³⁰⁾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정극인의 <상춘곡>은 문학적 가치가 높고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매우 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 가사 장르를 지도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賞春曲>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 작가는 어떤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 그런 삶은 유학자들의 가치관과 어떤 연관성을 띠고 있는가?

위의 두 가지 학습문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문제 의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조선조 사대부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선인들의 삶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삶의 양상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산수시가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賞春曲>의 작품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의 학습문제를 정리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 賞春曲의 내용 분석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 | |
|----------------------|------------------|
| ①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 이내 生涯(생애)엇더하고, |
| ② 넷 사름 風流(풍류)를 | 미출가 못 미출가. |
| ③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 날만흔 이 하건마는, |
|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 至樂(지락)을 모름 것가. |
| ④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 碧溪水(벽계수) 앞피 두고, |
|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 風月主人(풍월 주인)되여서라. |
| ⑤ 엇그제 겨울 지나 | 새봄이 도라오니, |
|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 夕陽裏(석양리)에 뛰여 잇고, |
| 綠楊芳草(녹양방초)는 |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
| ⑥ 칼로 몰아 낸가, | 붓으로 그려 낸가, |
| ⑦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 物物(물물)마다 현스럽다. |

30) 韓昌勳(1999), “古典詩歌 教育論 序說”, 『白鹿語文』15집, 白鹿語文學會, p.122

- ⑧ 수풀에 우는 새는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 ⑨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⑩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逍遙吟詠(소요 음영)하야,
閒中眞味(한중 진미)를
- ⑪ 이바 니웃드라,
⑫ 踏青(답청)으란 오늘 하고,
⑬ 아츰에 採山(채산)하고,
⑭ 甯 피여 낙은 술을
곳나모 가지 것거,
⑮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⑯ 樽中(준중)이 뷔엇거든
⑰ 小童(소동) 아히드려
얼운은 막대 집고,
微吟緩步(미음 완보)하야
明沙(명사) 조흔 물에
清流(청류)를 굽어보니,
⑱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⑲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⑳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엇그제 겹은 들이
㉑ 功名(공명)도 날 띄우고,
淸風明月(청풍 명월) 外(외)에
㉒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 春氣(춘기)를 못내 게워
興(흥)이이 다룰소나
亭子(정자)애 안자 보니,
山日(산일)이 적적헌디,
알 니 업시 호재로다.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浴沂(욕기)란 來日(내일)하새.
나조히 釣水(조수)하새.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수 노코 먹으리라.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날드려 알외여라.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아히는 술을 메고,
시냇그의 호자 안자,
잔 시어 부어 들고,
씨오느니 桃花(도화)이 로다.
져 밋이 권 거인고.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구름 소귀 안자 보니,
곳곳이 버러 잇디,
錦繡(금수)를 재팠는 듯.
봄빛도 有餘(유여)홀샤.
富貴(부귀)도 날 띄우니,
엇던 벗이 잇스을고.
훗튼 혜음 아니 하디.

(1) 序詞(①~④) 생활 공간 — 全樂·自足の 空間

‘홍진에 못친 분네’와 ‘산림에 못쳐 있는 나’는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홍진에 못혀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림에 못혀 사는 나’는 세속적인 이욕에서 벗어난 무욕의 심경에서 생활함을 의미한다. 정극인은 사대부이다. 사대부로서의 세속적 삶이란 관리로서 국가 경영에 참여하고 임금의 정치를 도와주는 경국제민에 있다. 그런데 그는 致仕客으로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난 산수생활을 통해 至樂을 즐기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런 자신의 삶을 ‘넛 사름 풍류’와 동일한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수생활을 통해 至樂을 추구하는 무욕의 삶, 이것이 곧 풍류이다. 자신의 이런 삶에 걸맞은 주거공간을 ‘수간모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위의 배경으로는 ‘벽계수’와 ‘송죽’을 둘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무욕의 경지에서 깨달은 것이 욕심 없는 자연과 자신의 삶이 일치됨을 자각하고 ‘풍월주인’이라 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정극인은 자신이 생활 공간을 至樂과 自足の 공간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풍류로 인식하여 ‘풍월주인’임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다.

(2) 本詞(⑤~㉑) 삶의 樣式 — 風流의 具體化

1) 春景의 玩賞(⑤~⑧)

봄을 맞아 생명감 넘치는 산수경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다.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도화’, ‘행화’, ‘녹양방초’에 시선이 쏠리게 되고, 이 같은 경물과 ‘석양리’, ‘세우중’이란 배경과의 조화를 이룬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느껴 춘경을 미화시켜 극대화하고 있다. 즉 ‘꽃’과 ‘석양’을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로 대비시키고, 물기 머금은 ‘녹양방초’의 싱싱함을 ‘세우중’의 흐릿함과 대비시켜 대상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의 공간을 관념적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일상적인 물리적 시간 속에 있

으면서도 의식은 이로부터 떠나, 미적 대상에 대한 관조가 깊어짐에 따라 감각은 정화되고 정신은 순화되어 고양된 상태가 된다. 그리하여 직관적 인식을 통해 그 정감을 내면에 환기하게 되는 것³¹⁾이다.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현스럽다'고 하여 자신의 감흥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2) 物我一體의 感興(⑨~⑩)

'물아일체어니, 흥이외 다툼소냐'는 <도산십이곡 전육곡>에 나오는 '四時佳興이 사롭과 혼가지라'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세계를 접하고 '物'[자연]과 '我'[작가]가 일체임을 깨닫고 느끼는 흥이다. 자연의 질서를 깨닫고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로 대자연의 질서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존재임을 깨닫고서 느낀 흥이다. 자신을 대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함으로써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흥을 주체하지 못하여 '소요음영'이란 행위를 통해 '한중진미'를 감득하게 되는 것이다.

3) 山水樂의 興趣(醉興)(⑪~⑰)

'이바 니웃드라'에서 '니웃들'은 정극인 자신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를 보면 알 수 있다. '니웃들'이 그의 詩客酒友라면 '수놓고 먹어보세'가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또 ⑰의 '시넷 7의 호자 안자' 취흥을 즐기는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로 볼 때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는 춘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심정에서 비롯된 독백의 어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산수구경"은 단순한 자연경물의 완상이 아니라 세속을 떠나 광활한 공간에서의 자연친화를 의미한다."³²⁾ 이는 폐쇄된 자아의 공간을 탈피하여 더 큰 대자연 속에서 정신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도가 '화풍', '녹수', '청향', '낙흥'이라는 부드럽고 맑으며 깨끗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경물을 소재로 등장시켰던 것이다. 이런 산수경물과 어우러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산수탁을 만끽하려는 것이다. 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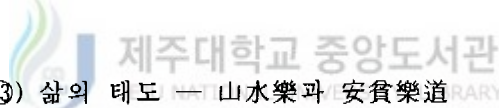
31) 白琪洙(1979),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p.93.

32) 박병환(1992), 앞의 책, p 602.

볼 때 ⑮는 관념 속에서 상상하는 至樂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⑭의 ‘수 녹코 먹으리라’와 연관지어 볼 때 이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⑮의 행위는 너무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⑰의 ‘微吟緩步호야 ~ 잔 시어 부어들고’는 취흥에 이르는 구체적인 과정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4) 超越의 世界로의 飛躍(⑱~⑳) — 感興의 極大化

취흥과 춘흥은 자신이 위치한 실제 공간을 관념적 초월 공간인 심경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자신이 세속을 초월했다는 심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선의 심경을 관념적으로 체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경이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천춘만락을 굽어보는 행위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세속 초월의 경지가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이다. 즉 세속적 이욕을 벗어나 몰아일체의 경지에서 삶을 영위하려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양식이 결사에서 구체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3) 結詞(㉑ ~ ㉓) 삶의 태도 — 山水樂과 安貧樂道

결사에서는 서사의 삶의 태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옛 사람의 풍류를 따르는 생활, 이것이 곧 부귀공명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이욕을 버린 삶으로 ‘청풍명월’로 대표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다. 자신의 본연지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삶으로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삶의 양식이다. 이런 삶이 지향하는 것이 곧 ‘단표누항’으로 표상되는 소박한 삶이다. 즉 벽계수와 송죽이 둘러싸인 속에 조그마한 수간모옥을 짓고 무욕의 심경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삶으로 ‘넷 사람의 풍류’를 따르는 삶이다. 곧 옛 성현의 행락을 본받아 안빈낙도의 삶으로 표방되고 있는 것이다. 유학자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윤귀섭은 “의식적으로 소박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귀족적인 우아와 여유를 배경에 갖고 있으므로 해서 하나의 가치관의 속성을 보여준다 하겠거니와, 이 소박미의 속성은 호사한 은일생활에 하나의 변화를 주는 또 다른 <멋>이요, 이 <멋>에다가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³³⁾라고 하였다.

이 때 ‘도덕적 의미’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가치관과 직결되는 것으로 유학의 예사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사상이란 조선조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개인의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생활 규범이요 사회 윤리를 의미한다. 예사상은 조선조 사립으로 하여금 개인의 수신과 사회생활에서 도덕성 회복을 행위의 최고 가치로 인식하게 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보다는 본질적인 존재론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수신하여, 자신의 가치를 실천궁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조선조 사립의 생활은 대단히 이성적인 행위였다. 학문하여 벼슬에 나아가立功의 덕을 베풀고, 致仕 후에는 향리에 물러나 산수생활의 樂을 추구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며, 사립의 이상으로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사상이 빈천에 만족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산수생활로 안빈낙도의 삶을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작품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앞에서 제기한 ‘학습문제’ 즉 ‘상춘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정극인은 致仕 후 산림에 묻혀 지내는 산림처사이다. ‘수간모욕’을 중심으로 하여 ‘벽계수’와 ‘송죽’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무욕의 심경에서 생활하는 인물이다. 매우 평안하고 안정적이며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수생활에서 오는 고독감이나 절망적인 정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염세적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경향도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自樂하는 인물이며, 그러한 자신의 삶을 풍류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풍월주인’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풍류생활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곧 ‘물아일체’의 ‘홍’인 것이다. 즉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로 대자연의 질서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존재임을 깨닫고서 느낀 홍이다. 이 경우의 ‘산수구경’은 단순한 자연경물 완상이 아니라 세속을 떠났다는 심정적 만족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자연이란 공간 속에서의 자연친화를 의미한다. 이 때 ‘홍’은 자신의 위치한 실재 공간을 관념적인 선경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청류’ — ‘도화’ — ‘무릉’으로 의식의 연결 고리가 형성된다. 이는 자신의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났다는 심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신의 자유로움과 대자연

33) 윤귀섭(1969), “歌辭의 東洋美的 表出”, 『同大論叢』1호, 同德女子大學, p.20.

속으로 비상하려는 내적 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이 때의 선경에 대한 인식은 관념적인 사유일 뿐이다 즉 조선조 사림의 산수문학에서 추구하는 선경은 은거의 山水遊賞으로 老莊의 장생불사의 出世思想이 아니라, 아름다운 산수경계의 감상을 통해 세속의 번뇌를 벗어나 모든 욕망이 승화된 순수한 정신의 청신함을 신선의 경지에 비유되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곧 선경의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³⁴⁾이다.

자연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연일 수 있는 것이다. 유가의 생활 현실은 차별적인 세계에서의 삶이다. 이 차별은 바로 생활 양상이며, 이념이 적용될 때 나타나는 구체적 현상의 출발점인 것이다. 老莊의 경우 이러한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은신처를 찾지만, 유가에서는 다만 정신적으로 공유하는데 그치기 쉬운 특징이 있다.³⁵⁾ 그러므로 결사에서 유가적 가치관으로 표출된 삶의 태도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사에서 작가의 유가적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부귀공명’이라는 세속적 이욕을 꺼리는 삶, ‘청풍명월’로 대표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단표누향’으로 표상되는 소박하고 안빈낙도하는 삶의 태도로 표출되고 있다.

34) 손오규(1998), 앞의 책, p.222.

35) 박영주(1983), “상춘곡의 작품구조와 자연관”, 『성대문학』22집, 성대국문학과, pp.105~106.

Ⅲ. 지도의 기본 방향

산수시가 지도의 기본 방향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조선조 정치·사회적 상황과 연계한 지도이고, 둘째는 성리학적 이념인 사상적 배경과 연계한 지도이다. 셋째는 산수시가와 현실의 환경문제를 연계한 지도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한 지도이다.

1. 정치·사회적 상황과의 연계

조선조 시가 지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향가나 고려가요에 비해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진원은 “국문학에 있어서 자연이 가장 문제시된 것은 이조문학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가가 그렇다. 이조시가의 내용은 반 이상이 자연이고, 그 자연의 지나칠 정도로 풍부함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상한 감까지 느끼게 하며, 나아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생각키우게 한다”³⁶⁾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의미를 노래한 작품이 풍부하게 된 원인을 조선조 사대부들의 귀거래 동기와 연결지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사대부들의 현실에 대한 갈등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갈등이란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할 당위나 그렇게 되어야 할 현실이 실제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즉 “갈등은 외적 자극에 반응하여 내면 세계의 지적·감정적 평형이 깨어질 때 흔히 나타난다.”³⁷⁾ 조선조 산수시가에 나타나는 작품들은 이러한 시인의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陶南은 강호가도의 형성과 양상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³⁸⁾

36) 崔珍源(1986), 앞의 책, p7

37) 강갑례(1989), “孤山詩歌의 抒情과 自然”,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p.3.

38) 조윤제(1963),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pp.130~141. , 崔珍源(1986), 위의 책, pp7~8에서 재인용.

太祖 太宗 世宗 三朝에 걸쳐 確立된 朝鮮의 國家的 基礎는 世祖 成宗 兩朝에 들어와서 더욱 堅固하여졌다. 더우기 成宗朝에 들어서는 李朝의 文物制度가 거의 完成되다시피 되어 오직 앞으로는 그 發展이 기대되었을 뿐이었는데, 燕山朝에 이르러서는 意外에도 政治社會에 尋常치 않은 一大 事件이 일어났다 그것은 곧 有名한 上禍요, 또 글로 起因한 黨爭이라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뜻 있는 사람은 或은 한번 風波에 놀란 사람은 도리어 宦界生活을 斷念하고 黨爭에서 벗어나와 山野에 杌隤히어 讀書一昧에 悠悠自適하려 하였다.(중략) 이것은 確實히 黨爭社會의 裏面을 움직이는 動中靜의 狀態로 無視할 수 없는 한 社會相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國家의 制度는 이미 安定이 된 때라 致仕客들은 太平宰相의 몸으로 後顧의 念慮도 없이 조용히 鄉里에 물러 앉아 이제는 多忙던 國家 社會의 일도 잊어버리고 山水에 樂을 부쳐 늙음이 將次 이름을 잊어버리려 하는 一脈도 있었다. 이것은 前者와는 全然 다른 意味에 있어 實社會와 遊離된 또 하나의 靜的 社會이나, 비록 그 動機는 다르다 하지마는, 다 같이 山水自然에 接近하려 하는데 있어서는 結果로 보아 同一하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燕山朝에 들어오면 이런 境遇 저런 境遇로 自然은 人生에 接近되어 理解되고 同時에 文學上 그 참다운 美가 漸漸 發見되어 갔다.

위의 논의로 볼 때 강호가도의 형성 원인은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연미의 발견 요인을 정치적 상황과 결부시켜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최진원은 이에 대해 논조의 비중으로 보아서 ‘당쟁하의 명철보신’이 主要原因이고, ‘치사객의 한적은 副原因이 된다³⁹⁾고 주석을 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致仕客의 閑適’과 ‘黨爭下의 明哲保身’을 노래하는 孟思誠과 尹善道의 시가를 비교하여 조선조 정치·사회적 현실이 이들의 시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江湖에 봄이드니 미친 興이 절로난다

39) 崔珍源(1986), 앞의 책, p9

濁醪溪邊에 錦鱗魚 安酒 | 로다

이 몸이 閒暇히움도 亦君恩이샷다

강호에 녀름이 드니 草堂에 일이 업다

有信헌 江波는 보내느니 夕靄이로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亦君恩이샷다

강호에 7율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있다

小艇에 그를 잊고 훌리씩어 더져두고

이 몸이 消日히움도 亦君恩이샷다

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기피 자하남다

샷갓 빗기쓰고 누역으로 오슬삼아

이몸이 칩지 아니히움도 亦君恩이샷다 (孟思誠, 江湖四時歌)



맹사성(공민왕 9년 : 1360 ~ 세종 20년 : 1438)은 고려조인 1386년(우왕12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고려왕조에서 이미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조선건국에 참여하였다. 그 후 조선 왕조에서 한성판윤, 이조참판을 거쳐 예조, 호조, 공조판서를 역임하고 세종 때에는 우의정과 좌의정에 올랐다. 그는 문학에도 매우 조예가 깊어,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 밝아 문학에 대한 공로도 매우 높았다. 그는 전통적인 관료이며 학자로, 또한 시인으로서 자신의 도덕관이나 정치적 견해를 문학작품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였다.⁴⁰⁾

이 작품은 致仕 후의 閑適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조의 구조를 보면, 각 연의 초장과 중장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감흥을 노래했다. 즉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만물의 풍요로운 세계를 접하고 느끼는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봄에는 시냇가에서 금린어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春興을 노래하고, 여름에는 강에서 술

40) 鄭垣均(1992), "君恩의 표현과 서정성의 문제",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p.505

술 불어오는 강바람을 쏘이며 더위를 식히고, 가을에는 조그마한 배에 그물을 싣고 흘러가며 秋景의 아름다움을 완상하고, 겨울에는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한가히 지내는 삶을 표현하고 있다. 각 연의 종장은 초장과 중장을 종합하여 풍요로운 산수생활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외부적 환경 즉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내면적 갈등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치사객으로서 세속의 이욕과 명리를 떠난 산수생활을 통해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심정적인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속에서도 사대부로서 임금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삶의 한가로움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려는 사대부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尹善道の 작품으로 앞에 제시한 孟思誠의 「江湖四時歌」와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앞의 시가 致仕客의 閑適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 시는 「黨爭下의 逃避·賢者避世」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작가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尹善道の 字는 約而이고 號는 孤山, 이밖에 海翁이라고도 하며 湖南 海南人으로서 1587년에 태어나 1671년까지 살았다. 그는 사대부 집안에서 성장했는데 어릴 때부터 자질과 품성이 출중하였다. 18세에 進士 初試에, 20세에 進士試에 합격하였다. 1616년 30세 때 예조판서 이이첨의 죄를 극언 상소하는 丙辰疏를 올려 경원으로 유배당하였다. 경원배소에서 「遭懷謠」 5수와 「雨後謠」를 지었는데 1623년 37세 때 인조 반정으로 8년만에 金吾郎으로 소환되었다. 1628년 42세 때 이조판서 장유의 천거로 봉림, 인평대군의 사부가 되어 생애 중 황금기를 맞았다. 1635년 귀향하였는데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이에 고산은 향리의 자체와 가복을 모아 강화도로 가려했으나 이미 함락되었고 남한산성으로 가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완도에 머물게 되었다. 52세에 大同察訪을 제수받았는데 稱病으로 부임하지 않아 영덕으로 유배를 당하였으며 풀려나와 「山中新曲」을 지었다. 65세 때 부용동에서 「漁父四時詞」를 지었고 66세 때에는 「夢天謠」를 지었다.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이에 인조비 자의대비의 제복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삼수로 유배당하였다. 이 때가 74세였으며 현종 9년 1667년 81세에 방석되어 1671년 6월 부용동 낙서재에서 卒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산의 생애는 유배와 정치적 좌절로 점철되어 있다. 그의 귀거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의한 타율적인 귀거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는 ‘黨爭下의 逃避·賢者避世’의 정치·사회적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

(가) 醉하야 누었다가 여흠 아래 느리려다

落紅이 흘러오니 桃源이 갓갓도다

人間紅塵이 언제나 ㄴ렷느니 (尹善道, 漁父四時詞, 春詞八)

(나) 모래우회 금을 넣고 썬미터 누어쉬자

모기를 뺨다홀야 蒼蠅이 엇더흔이

眞實로 담안흔 勤心은 桑大夫 들을세라 (夏詞八)

(다) 松間石室에 가 曉月을 보자하니

空山落葉의 길홀 엇지 아라블고

아회야 白雲이 조츰오나 女蘿衣 무집고야 (秋詞十)

(라) 간밤의 눈긴 後의 景物이 달났고야

압회논 萬頃瑠璃 뒤회논 千疊玉山

仙界ㄴ가 佛界ㄴ가 人間이 아니로다 (冬詞四)

(가)詩 : 醉하여 누웠다가 일어나 낙홍이 흘러오는 여흠을 바라보며 도연명의 ‘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상상한다. 자신이 생활공간을 세속을 떠난 신선 세계인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취하고자 하는 행위와 ‘인간홍진이 언제나 ㄴ렷느니’를 연관시켜 볼 때 슬로써 현실의 좌절과 욕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적 갈등을 읽을 수 있다. 이로 볼 때 그의 산수생활은 정치적 불운에서 오는 현실적 불만과 심리적 갈등에서 초탈하고자 하는 黨爭下의 逃避·賢者避世로 볼 수 있다.

(나)詩 : 초장은 근심 걱정 없는 어부 생활의 정신적 여유와 한가함을 표현하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어부 생활의 한가로움을 표방하고 있을 뿐이지 인간세상의 근심사에서 완전히 초탈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종장의 '桑大夫 들을세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상대부'처럼 권력을 쥐고 흔드는 무리들이 듣는다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 자신에게 해가 미칠까 걱정된다는 뜻이다. 즉 한가롭고 즐거운 어부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세속사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산의 귀거래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정치적 현실에서 오는 타율적인 귀거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산수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自樂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詩 : 이 시는 송강 정철의 「속미인곡」에 나오는 “잡거니 밀거니 놓픈 피혁 올라가니 구름은 크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山川(산천)이 어둡거니 日月(일월)을 엿디보며 咫尺(지척) 모라거든 千里(천리)를 바라보라” 를 연상하게 하는 작품이다. '일월'은 임금을 비유하고 있으며 '구름·안개'는 임금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상징된다. 이 시에서 '효월'을 임금에 비유한다면 '공산 낙엽의 길'은 자신의 宦路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朝臣들의 질투와 모함, 비방 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장에서 양 어깨가 무겁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詩 : 눈 은 후의 산수경물의 변모를 미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며 옥처럼 고운 세계, 이런 세계가 신선의 세계나 부처의 세계가 아닌가. 이는 눈 덮인 자연이 주는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상주의자의 표방이며 隱逸的 사고의 발상”⁴¹⁾인 것이다. “자연은 실제보다 환상적으로 미화한 것은 인간세계에 대한 불평·불만을 자연계에 몰입함으로써 정치적 패배로 인한 공허한 심리를 보상받으려는 데서 나왔다.”⁴²⁾ 이는 이상세계의 경지를 동경하는 차원으로 고양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산은 자기 인격의 완성이나 마음의 여유에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벼슬에서 물러난 불우한 정객으로서, 또는 의지할 데 없는 미약한 존재로서 자연에 의지했다. 이는 자기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보상받고자 하였으니, 고산의 자연은 보상적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현실적 좌절을 안겨

41) 文永午(1983), 「孤山 尹善道 研究」, 태학사, p 187

42) 元容文(1988), 「尹善道 文學 研究」,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117

준 朝臣들과 정치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울분을 직·간접적으로 투사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 대한 강한 애착과 미련의 반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맹사성과 고산의 시가 비교를 통해 조선조 정치·사회적 현실이 이들의 시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맹사성의 시가에는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오는 심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치사객으로서 세속의 이욕과 명리를 떠난 산수생활을 통해 사대부의 취향에 맞는 겸소하고 소박한 치사객의 한적을 노래하고 있다.

반면 고산은 유배와 정치적 좌절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른 타율적인 귀거래로 인해 현실적 불만과 심리적 갈등을 토로하고 있다. 즉 고산의 산수생활은 겉으로는 어부생활의 한가로움과 自樂을 표방하고 있지만 인간세상의 근심사에서 완전히 초탈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조선조 사대부들의 귀거래 동기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시가 반영 양상도 致仕 후의 閑適과 黨爭下의 明哲保身·賢者避世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고등학교 문학교과와 산수시가 지도에서는 산수생활이란 소재의 공통성으로 인해 일률적이고 도식화된 '안분지족', '안빈낙도' 등으로만 한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조 정치·사회적 현상을 도외시하는 부분적이고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지도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서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귀거래의 양상에 따라 작품을 개별화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사상적 배경과의 연계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는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사상적 배경인 성리학에 대한 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조 산수시가의 주담당층인 사대부들의 사상적 배경의 이해를 통해 당시의 문학적 특색과 그들의 세계관·가치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손오규는 강호가도의 연원을 조선조에 들어와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이라는 정치·사회적 현상에서 찾기보다는 문학사 속에서 살폈다. 특히

유학의 발전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⁴³⁾

만약 朝鮮朝 士大夫들이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에 의하여 자연미를 발견하였다면 江湖歌道를 노래하고 있는 자연의 세계는 거의가 超現世的인 이 상황에 대한 동경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黨爭下의 明哲保身'이란 분명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인간 세상사를 소홀히 하여 삶의 소극적 태도를 가지게 한다. 나아가서는 염세적 세계관까지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江湖歌道에는 염세적 세계관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삶의 소극적 태도를 거부한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외면하는 富貴功名的 유혹과 利慾의 집착을 벗어나 山水間에 隱居하여 학문에 沈潛하고 存養省察을 게을리 하지 않는 獨善의 즐거움과 대자연 속으로 비상하는 정신적 자유 속에서 宇宙的 眞理인 大自然의 理法에 대한 감동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陶南이 지적한 '黨爭下의 明哲保身'은 현실 도피적 사회풍조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朝鮮朝 士林들이 出仕하여 높은 벼슬을 貪하기보다는 학문과 修身에 뜻을 두고 山水間에 隱居하여 독서에 열중하던 사회적 기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致仕客의 閑適'도 마찬가지로 朝鮮朝 士大夫들이 벼슬을 하되 尙貧을 사랑하며 出仕하여 兼善天下한 이후에 歸去來하던 사회적 풍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朝鮮朝 士大夫들이 自然에 대한 동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유교적 세계관에 의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陶南이 주장한 강호가도의 형성 원인인 '당쟁하의 명철보신'과 '치사객의 한적'은 자연미 발견의 遠因이다. 근본 원인은 조선의 문화적 환경인 유학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둘째, 유학이란 사상적 배경하에서 형성된 문학이기 때문에 인간세상사에 대한 삶의 소극적 태도나 염세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며 세속적 이욕과 명리를 떠난 산수생활을 통해 학문하며 修身하는 獨善의 즐거움과 성리학적 이념을 궁구하는 감동을 노래하고 있다 셋째, 陶南이 지적한 '당쟁하의 명철보신'은 현실 도피적 풍조가 아니라, 조선조 사림들

43) 손오규(1994), 앞의 책, pp.32~33

이 산수생활을 통해 학문과 수신에 뜻을 두었던 사회적 기풍이다. ‘치사객의 한적’도 출사하여 兼善天下한 이후에 귀거래하던 사회적 풍조를 의미한다는 내용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는 조선시대의 정치적 상황인 사회적 환경과 사상적 배경인 성리학에 대한 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미 발견의 원인은 정치·사회적 현상과 조선조 사대부들의 유교적 세계관인 성리학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자학이 고려 말 치국이념으로 대두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교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지식인들의 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가 초현실적인 세계관에 따라 현실의 삶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면, 유교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의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주자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가치관이요 세계관으로 강한 실천 의식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조선 개국과 더불어 조선사회의 정신적 지주요 정치적 이념이요 학술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한다. 性의 대상은 인간이고 理의 대상은 자연이다. 이들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연의 생명 질서와 천지운행 등의 理法을 탐구하여 그 근원과 본질을 깨닫고자 하였다. 이들은 자연의 생명 질서와 천지운행의 근원을 학문이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가치로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유교의 가치관인 ‘禮思想’과 연결된다. 禮는 조선조의 전통적 가치관으로서 개인의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규범이요 사회 윤리였다. 정신적 가치로서의 禮는 인간의 삶을 좀더 가치 있고 품위 있게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윤리 의식이며 주체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선조의 선비들은 개인의 수신과 사회생활에서 도덕성 회복을 행위의 최고 가치로 인식하게끔 되었다. 벼슬에 나아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도덕성을 상실하거나 혹은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강요받게 되면 언제나 미련없이 벼슬을 버리고 산수에 물러났다. 조선조 사대부에게 있어 산수를 찾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

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인식하였다. 이로 볼 때 조선조 사림의 산수생활은 매우 이성적인 행위였으며, 산수시가의 사상적 배경은 유학이 근간을 이루었고, 그들이 묘사한 山水樂과 산수는 그들의 가치관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노장사상에서 기인한 산수생활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퇴계의 다음 글을 통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

옛날 산림을 즐기는 사람을 보건데 둘이 있다. 玄虛를 그리워하여 高尚을 섬겨 즐기는 사람이고, 道義를 기뻐하여 心性을 길러서 즐기는 사람이다. 전자를 따르다면 潔身亂倫에 홀려 심한즉 鳥獸와 무리지어도 그릇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두렵고, 후자를 따르다면 좋아하는 바는 糟粕뿐이요 그 전할 수 없는 妙에 이르러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얻을 수가 없으니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오. 그러나 차라리 후자를 위하여 스스로 힘쓸지언정 전자를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 않겠다.⁴⁴⁾

퇴계는 산수생활을 ‘도의를 기뻐하며 심성을 길러서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노장의 산수생활은 潔身亂倫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있다. 노장의 자연관을 배척하는 이유가 玄虛高尚이지만 결국은 潔身亂倫에 홀려 심하면 鳥獸와 무리지어도 그릇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장의 자연관은 사회질서와 인륜도덕을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장의 산수생활은 문명의식을 배격하고 소박한 자연의 원래적 삶의 모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반영으로, 감성과 이성의 조화된 주체로서의 자아를 정립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장의 유파들은 일체의 인공과 인위를 배격한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행위나 판단조차도 인위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인공이 가해짐이 없는 일체의 현상을 天然의이며 自然的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모든 인위적 행위를 벗어나 천연적이며 자연적인 삶을 지향한다 곧 무위자연이라고 할 수

44) 退溪學研究院(1988), 앞의 책, p.41.

觀占之 有樂於山林者 亦有二焉 有慕玄虛 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 頤心性而樂者 由前之說 則恐感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 與鳥獸同群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則 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 寧爲此而自勉 不爲彼而自誣矣

있다.

그런데 퇴계는 성리학자로 이성을 모든 행위의 판단과 실천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이성과 감성의 相互融和를 통한 조화로운 인격을 중시하였다.

그러면 불가에서는 자연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아래의 僧家詩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지가지 새짐송이 이리날아 저리오고
저리날아 이리오니 가며오며 우는소래
소리마당 설법이오 청풍이 소소하면
칠보행수 요동하고 은경댕경 나는소리
백천풍류 울리시고 들리는 소래마당
염불설법 뿐이로다 (僧元歌)

새 소리, 바람 소리, 풍경 소리는 모두 염불과 설법으로 들린다. 이처럼 불교 시가는 자연현상을 즉물적으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귀착시킨다. 景閑은 「白雲和尚語錄」에서 꽃과 나무, 벌과 제비, 나비, 피꼬리 등 모든 자연물이 그대로 諸法의 實相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의 자연관은 깨달음의 바탕 위에서 본체와 현상을 一如의 경지로 파악하고 있다. 자연을 서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 즉 眞如體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려의 시에는 인간적인 정조를 느낄 수 없어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없고 메마른 특징을 지닌다. 승려들은 자연을 관조하며 궁핍하고 고요한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들의 시가는 맑고 깨끗하며 철학적·종교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반면 비세속적 내지 초세속적이어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딱딱하며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없다.⁴⁵⁾

불가의 시에서 자연은 극복·초월의 대상이다. 마음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우선 불가에서는 그 마음조차 부정한다. 마음이 깨달게 되면 마음도 법도 없다. 그것은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주관도 객관도 없다. 즉 불가의 자연관은 깨달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며, 자연까지도 인연에 따

45) 허남춘(1999), 앞의 책, pp.127~128.

라 모인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퇴계의 「도산십이곡, 前二曲과 前五曲」의 지도 방향을 성리학적 사상과 결부시켜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煙霞로 지불삼고 風月로 버들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니

이듬에 北극는 이른 허브리나 업고자 (李滉, 陶山十二曲, 前二曲)

山前에 有臺호고 臺下에 流水이로다

빼만흔 굴머기논 오명가명 호거든

엇다타 皎皎白駒는 머리마슴 호는고 (前五曲)

위의 시가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퇴계 선생에 대해서 학생들은 고려말에 수입된 程朱의 주자학을 집대성하여 그 체계를 정립하는데 큰 공헌을 남긴 성리학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시가에 나타나는 내용은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자연을 벗삼아 허물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산수간에 갈매기가 나는 한가로운 삶을 상상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엇다타 皎皎白駒는 머리마슴 호는고'라는 구절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을 정도일 것이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현대시와 비교해 볼 때 너무 평범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시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또 무엇을 지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조 산수시가의 주담당층인 사대부들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당시의 문학적 특색과 그들의 세계관·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거침으로써 작품 속에 내재해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심미적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시가작품 지도에 있어서는 우선 조선조 사대부들의 사상적 배경인 성리

학에 대한 지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주석적 지도에 따른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에 그칠 것이다. 즉 체계적인 이론교육의 바탕 위에서 산수시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도 방법으로는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작품에 대한 분석은 II장 2절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볼 때, 퇴계의 산수생활은 단순히 세속적인 이욕을 떠나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정신적인 자유로움과 심정적 만족감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의 차원을 넘어 성리학이란 학문을 궁구하는 학문의 연장선상에서 살피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연을 성리학적 이념을 궁구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고, 자연지성을 통해 본연지성을 깨달아 至於至善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 이는 성리학적 이념을 궁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시가를 지도할 때는 성리학이란 사상적 배경과 연계하여 지도하지 않으면 단순히 자연 속에서 세속적 가치인 물욕과 명리를 벗어나 안빈낙도를 노래하는 시가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자학은 고려말을 거쳐 조선 개국과 더불어 조선 사회의 정신적 주요 정치적 이념이며 학술의 중심으로 사회·정치·문화 전반에 걸쳐 절대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둘째,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의 생명 질서와 천지 운행의 근원을 학문이란 지적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가치로 승화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유교의 가치관인 '예사상'과 결부되어, 인간의 행위가 본능을 극복한 이성적 실천 행위로, 개인의 수신과 사회생활에서의 도덕성 회복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조 사림의 산수생활은 현실 도피나 염세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묘사한 산수와 山水樂은 현실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명의식과 모든 인위적 행위인 사회질서와 인륜도덕을 거부하고 부정하

는 노장의 현실 도피적이고 염세적인 산수생활과는 차이가 있다. 또 불가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전제하에서 본체와 현상을一如의 경지로 파악하는 비세속적 내지 초세속적인 삶의 태도와도 차이가 있다.

셋째, 퇴계의 <도산십이곡, 前二曲과 前五曲>의 작품 분석을 통해 조선조 사립의 유교적 가치관이 어떻게 산수시가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산수생활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산수생활을 통해 천리를 궁구하여 자연의 이법에 따르는 삶의 추구이며, 자연지성을 통해 자신의 본연지성을 깨달아 '止於至善'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성리학적 이념의 실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 있어서 사상적 배경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작품의 참된 가치를 이해할 수 없고 심미적 감상 차원의 교육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환경 교육과의 연계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焦眉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의 심각성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의 결과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도시의 비대화, 화석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 공업 용수의 다량 사용 등으로 대기 오염, 식수원 오염, 토양 오염 등을 초래했다. 이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물질 문명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맞물려 물질 향유욕의 무절제를 낳아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자연 파괴의 한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산업 문명은 인간 중심주의, 생산력주의, 풍요 중독, 소비주의, 경제가치 위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인류를 비롯하여 온 생명을 위협하는 자기 絶滅의 문명을 낳게 했다. 즉 인류를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려던 물질 문명이 오히려 인류 및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모순적 상황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식인들은 환경과 생태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많은 환경 단체들도 생겨났다. 학문 분야에도 녹색 정치학, 녹색 경제학, 녹색 사회학 등이 생겨났고, 문학 분야에도 「문학 생태학」, 「녹색 문학」, 「생태 시학」등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⁴⁶⁾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문학교육에서도 환경 오염과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환경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중의 하나인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바르게 이해, 감상하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대목과 함께 ‘문학의 영역별 내용’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나 영역별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 ① 문학과 언어, 문학과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
- ② 문학의 인지적, 정의적, 심미적 복합 구조를 이해한다.

(나) 문학의 기능

- ① 문학이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 ② 문학이 개인적 삶의 고양과 공동체 통합의 기능이 있음을 이해한다.

(다) 문학의 갈래

- ① 문학 갈래의 개념과 갈래 구분의 원리를 이해한다.
- ② 갈래의 체계 속에서 문학을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라) 문학의 가치

- ① 문학이 가치의 산물임을 이해한다
- ② 문학 활동이 언어적, 문화적 실천 활동임을 이해한다.

위의 항목 중 (나)항 ②와 (라)항 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적 삶의 고양과 공동체 통합의 기능’ 그리고 ‘문학 활동의 문화적 실천 활동’을 명시하고

46) 김옥동(1998),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pp.21~23.

있다 이는 문학교육이 현실 인식과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학을 통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임을 김옥동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시적 담론이란 문학 예술가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가치 또는 정서적 힘을 말할 때 흔히 쓰는 담론을 가리킨다 이 담론은 자연을 규제적 담론처럼 천연 자원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학적 담론처럼 지식의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문학가들은 자연을 흔히 영혼이나 초월적 존재로 간주하기 일쑤이다. 시적 담론에서 주로 情念이나 情意의인 성격을 띠고 청중이나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만큼 파토스가 가장 중요한 대접을 받는다 (중략) 그런데 그 영향력으로 보나 그 효과를 보나 생태 의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역시 시적 담론이 과학적 담론이나 규제적 담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생태 문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과학자들이나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의 몫보다는 문학 예술가들의 몫이 무척 크다 47)

이 글은 문학작품을 통한 환경교육이 훨씬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 및 훼손에 따른 문제를 고전시가 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인식시키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도의 중점을 둘 것이다 즉 조선조 산수시가를 통해 사대부들의 산수애호 정신과 안빈낙도라는 삶의 자세를 터득하게 하여 현대 사회의 무절제한 물질 소유욕에 대한 각성과 비판을 통해 학습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지도의 중점을 둘 것이다.

현대의 환경 문제를 고전시가와 연계시켜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견해들이 있다 이동환은 현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고전시가의 '안빈낙도' 사상과 그것이 표상하는 동양의 인문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이 '안빈낙도' 사상에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욕망의 좌절에 대한 위안의

47) 김옥동(1998), 앞의 책, pp.30~31

철학을 넘어서 자연 유한관에 기초한 인류 공동체의 삶의 항구적 지속을 위한 일종의 전략이 깃들여 있다⁴⁸⁾고 하였다. 한창훈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天人合一’의 논리와 ‘물아일체’의 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여 자연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시킨 존재 전체를 생각하게 한다고 했다. 이런 자연론적 화해론에 서서 윤리적 이념을 자연 속에서 찾는 입장은, 보이지 않는 理는 보이는 氣로 자연스럽게 피어난다는 사고 방식과 일치하게 된다. 이는 ‘생태학적 각성의 성격을 띠게 되고 자연과의 갈등이 아닌 조화가 전면에 부각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문화와 우주 자연을 합일시키고 새롭고 창조적인 인간의 재규정이 필요한데, 서구 사상사에는 이런 전통이 빈약하여 그 전통의 결핍을 동양 사상, 그 중에서도 조선조 新儒學 특히 主氣論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⁴⁹⁾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김옥동은 동·서양의 목가문학 또는 전원문학에 나타난 대자연은 한낱 휴식과 위안을 주는 안식처나 도피처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했다 즉 목가문학이나 전원문학은 현실 도피적 성격이 아주 강하며 자연은 한낱 이상향이요 낙원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을 단순히 노피처로 여기는 것은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자연 그 자체에 어떤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한낱 수단이나 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그 예로 동양에서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고려가요의 「청산별곡」, 윤선도의 「오우가」, 정철의 「관동별곡」, 김상용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생태 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목가문학이나 전원문학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이유로 자연은 그 자체로 자기 목적성이나 존재 이유를 지니지 못하고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구실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⁵⁰⁾ 라고 지적하였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목가문학 또는 전원문학에 나타나는 자연은 모두 안식과 위안의 현실 도피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연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인

48) 이동환(1997), “좌담 문명의 전환과 국문학 연구”, 「민족문화사연구」10집, 민족문화사연구소, pp 30~33 ; 한창훈(1999), 앞의 책, p.121에서 재인용

49) 한창훈(1999), 앞의 책, pp.119~122.

50) 김옥동(1998), 앞의 책, pp.279~289

정하지 않고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제점을 다소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작품의 개별성 파악을 간과하는 인식이며, 둘째는 귀거래의 동기만을 문제삼아 현실 도피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것, 셋째는 자연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노래하는 시가작품들, 즉 자연합일의 경지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견해로 보인다.

동양의 목가문학 또는 전원문학 중 조선조 산수시가는 그 사상적 배경을 성리학이라는 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리학은 철저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유교의 가치관인 '예사상'은 개인의 수신과 도덕성 회복을 행위의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였다. 비록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귀거래를 하여 산수생활을 하더라도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조 산수시가에 나타나는 사대부들의 산수생활은 현실 도피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의식 양상은 II장 1절에서 언급했지만, 理念의 表象, 自足的 空間, 唯美的 形象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작가의 이데올로기 전달 수단이나 도구로만 인식하지는 않았다.

조선조 산수시가를 환경교육과 연관시켜 지도할 때 먼저 학습자에게 인식시켜야 할 사항은 현대의 자연 파괴·훼손,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사실부터 일깨워 주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 즉 자연관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서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양의 기능적 자연관과 무관하지 않으며,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과는 거리가 있다.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서양 기독교적인 자연관에서는 신이 창조한 자연은 인간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므로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자연관이 현대

의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즉 '天人合一'의 논리나 '물아일체', '자연합일'의 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여 자연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동양의 자연관은 몰활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몰활론의 세계관은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체 심지어는 돌과 강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신비주의적 샤머니즘을 낳게 하였다.

이런 동양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지배의 대상이 아닌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자연을 단지 감각적 아름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 질서에 의하여 운행되며 현상을 초월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사유하였던 것이다. 즉 조선조 사대부들은 인간과 세상을 포함한 우주의 기본 이치를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합일을 통해 스스로 그 이치를 체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관이 반영된 산수시가를 이해하고 감상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연관이 지니는 참다운 의미를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자연 파괴 및 환경오염에 대한 각성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산수시가 교육을 통해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와 '자연합일'의 경지를 노래했던 선인들의 생활과 검소·검약하는 생활 태도를 체득하여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절제하는 삶의 태도가 가치 있는 삶이란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연의 물질적 기능만을 중시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사고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위의 논의를 전개시켜 보기로 한다.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態(태) 업슨 流水(유수) | 로다.

갑 업슨 淸風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듬에 일 업슨 너뎨이 分別 업시 늘그리라 (成渾)

무언의 청산과 무태의 유수를 벗어나 세속의 명리보다는 학문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옛 선비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초장은 청산과 유수가 대구가 되어 자연의 의연함과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중장은 '갑업슨 청풍'과 '임즈업슨 명월'을 통해 물욕을 벗어난 경지를 노래하고 있으며, 종장의 '일업슨 너뎨'이란 세속적인 명리를 떠난 선비의 삶을, '분별업시 늘그리라'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조화로운 삶을 의미한다. 다음 작품도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十年(십년)을 經營(경영)하여 草廬三間(초려삼간) 지어 내니,
나 한 간 돌 한 간에 淸風(청풍) 한 간 맞겨 두고,
江山(강산)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宋純)

자연의 아름다움에 몰입한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로, 자연친화를 통해 안분지족과 안빈낙도라는 삶의 지혜를 터득한 작가의 높은 정신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초장은 검소·검약하는 생활 태도로 물욕에 대한 절제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초려삼간'이란 대상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나'와 청풍'과 '명월'이 초가삼간 속에서 일체를 이루는 물아일체, 물심일여의 생활, 강산은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는 의식, 세속을 초탈한 삶의 풍류가 멋스럽다. 작가의 정신적 깊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 전체의 흐름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물욕을 초월한 삶의 자세, 산수애호 정신에서 비롯되는 자연합일의 정신, 티없이 맑고 깨끗한 작가의 인품이 작품 속에 녹아 흐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물욕을 초월한 심경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촌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無心(무심)한 돌빛만 잇고 뵈 뵈 저어 오노미라. (月山大君)

가을 강의 밤 경치와 달빛 아래 낚시를 드리우고 있는 정경은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물욕과 명리를 초월한 유유자적한 심경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고 있다. 낚시는 작가의 관심 밖이다. 작가의 관심은 달빛이 온 강산을 비추고 있는 황홀경에 있다. 그러므로 무심한 달빛만 실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작가는 빈 배로 돌아오는 아쉬움 따위는 관심 밖이고, 자연의 황홀경을 만끽하고 돌아오는 심정적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 시는 가을 농촌의 풍요로움과 흥겨움을 노래하고 있다.

大棗(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리며,
 벼 뽕 그루헤 계논 어이 느리논고.
 술 익자 체 장수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黃喜)

치사 후 귀향하여 자연에 묻혀 사는 생활의 풍정이 손에 잡힐 듯 그려진 작품이다. 골짜기에는 대추와 밤이 익고 벼를 뽕 그루터기에 계가 내려와 한가히 기어 다니는 늦가을 농촌의 평화로운 정경이다. 술 익자 때 맞추어 체 장수가 체를 팔고 돌아간다. 햅쌀로 빚은 갓 익은 술을 체로 걸러서 마시는 생활의 멋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시상 전개가 매우 자연스럽다. 이 시는 가을의 풍요로움과 흥겨움을 노래하면서도 물욕에 대한 집착은 찾아볼 수 없고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조성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가을이라는 계절적 풍요로움이 주는 자연의 혜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를 통해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물질적 만족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산수생활을 살펴보기로 하자.

山村(산촌)에 눈이오니 들길이 무쳐세라.
 柴扉(시비)를 여지마라 날 촌즈리 뉘 이스리.

밤중만 一片明月(일편 명월)이 귀 벗인가 호노라. (申 欽)

자연을 벗하여 살아가는 시적 화자의 심경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온 세상이 흰 눈에 덮힌 산촌의 아름다운 설경이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柴扉'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草屋의 모습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작가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세속적 가치인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속에서 산수경물을 완상하는 지극히 정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 '벗'이란 어휘를 통해 '일편명월'로 표상되는 자연을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즉 無情物을 有情物化하여 자연과 인간이 간격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맑은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이 은백색으로 채색한 강산에 그 밝음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세상, 이는 고요의 극치요, 아름다움의 극치로 신비로운 감마저 들게 한다. 다음 시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江山(강산) 조흔 景(경)을 힘센이 닷뜰 양이면,
너 힘과 너 分(분)으로 어이하여 엇들썩이.
眞實(진실)로 禁(금)호리 업쓸씨 나도 두고 논이로라. (金天澤)

자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생략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드러난다.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권력이나 금력 따위에 초연하면서 오로지 자연 속에서 인생을 즐기려는 옛 선인들의 생활 태도가 재치있게 표현되었다. 그러면서도 권세가 없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분수에 비취볼 때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반문을 통해 당시의 신분 질서의 일면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가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자연은 만인의 소유물이므로 한없는 자연의 너그러움을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기는 양상을 보인다.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호터 벗 업시 혼즈 안즈,

平調(평조) 한 님히 白雲(백운)이 절로 존다.

언의 누 이 조흔 뜻을 알리 잇다 ㅎ리오. (金壽長)

세속을 떠나 산수간에 조그마한 초암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는 유유자적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무대는 적료한 초암이고, 곡조는 평조 대엽의 즉흥곡이며, 연주는 독주이고, 관객은 '백운'으로 표상되는 자연이다. 산수경물의 아름다움에 취해 흥에 겨워 뜯는 거문고의 노래는 가히 천지만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자연과 어우러진 삶, 이것이 선인들의 풍류의 한 양상이며, 미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다음 시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심경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田園(전원)에 나른 興(흥)을 전나귀에 모도 싣고

溪山(계산) 나근 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아히 琴書(금서)를 다스려라 나른 ㅎ를 보내리라. (金壽長)

대자연 속에서 자연미를 만끽하며 풍류를 즐기다가 흥에 겨워 돌아오는 작가의 모습이 동적으로 표현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느낀 진한 감동을 저는 나귀에 싣고 돌아오는 모습은 자연에서 느낀 감동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나귀가 무거워 질뻔거릴 정도의 흥, 자연에서 얻은 흥을 남은 시간 동안 젖어 지내려는 모습에서 자연에 몰입하는 작가의 심적 여유와 넉넉한 삶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산수시가를 통해 '안빈낙도' 사상과 '자연친화' 사상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작품들을 환경 교육과 연계시켜 지도할 때 먼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는 어떤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보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시의 내용을 읽고 분석하면 웬만한 학생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쉬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세속적 가치인 물욕과 명리에서 벗어나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조

화로운 삶이 가치있는 삶을 이해할 것이다.

둘째, 물욕과 명리를 초월하여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가치있는 삶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만약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면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물질적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여유롭고 한가하며 정신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오늘날 현대 사회는 위의 두 질문과 같이 극단적으로 이분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조 산수시가에 나타난 산수생활의 이상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의를 시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생각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 정도까지 수업이 진전되면 위의 산수시가의 작가들이, 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 생각된다. 즉 세속적 가치인 물질적 풍요나 명리보다 자연 속에서 정신적 여유로움과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을 회구하게 되는 것은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라는 동양적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란 차원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현실과 같은 물질적 향유욕의 무절제 속에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 오염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될까?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이라는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현실의 갈등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물질적 풍요만이 가득한 삭막한 사막 같은 세상을 생각해 보자. 이런 세상에서도 정신적 여유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자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연은 인간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요 안식처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자연을 찾으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토론하게 하여 해답을 찾아내

게 하는 것이다. 이런 지도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정신적 풍요에 있음도 인식시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발전하는 문명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도를 통해 자연을 보는 시각에 변화를 이끌어내며 가치관에 영향을 주어 삶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는 것이다.



IV. 지도의 실제

1.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 요소

문학과목은 여러 종류의 문학작품을 학습자 스스로 즐겨 읽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문학에 대한 흥미와 감상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지도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배양이 필요하다. 운동 경기나 놀이에서 규칙을 알고 임했을 때 흥미와 즐거움의 정도가 배가되는 것처럼 문학도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해야만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 작품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며 감상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단순히 느끼는 차원을 떠나 학습자들에게 심미적 기쁨과 가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으며, 이 같은 감동과 문학적 체험을 내면화하여 문화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 세계와 자신에 대한 안목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신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을 지도할 때는 학습자들의 삶과 동떨어진 단순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경험과 연계시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전문학의 경우 단순한 훈고, 주석에 치우치지 말고, 현대적 삶과 연계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교과서의 교수·학습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사항은 학습 목표의 중요성이다. 학습 목표는 단순히 고식적인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문학교육이 궁극적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로 세목화한 것이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과정 속에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침잠하지 말고, 세부적인 학습 목표들을 명확하게 습득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다시 더 상위 목표들과 연결시키면서 수업을 진행시키는 총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즉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적용하며 평가하는 수업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조선조 산수시가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산수시가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단원에 나오는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을 시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교사는 다양한 수업 기술과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시키면 학습자들이 수업 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학습 능률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8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산수시가의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의 요소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1) 시조의 기본 형식— 평시조의 양식적 전형
- (2) 연시조의 형태적 특성
- (3) 조선 전기 시조의 일반적 특징과 전개 양상 — 소재면, 주제면
- (4) 시조의 율격·형식과 유학자의 미의식과의 관계
- (5)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
- (6) 관념의 시적 형상화 방법
- (7) 언어 표현 요소가 갖는 미적 기능
- (8) 조선 전기 시조의 국문학사적 의의 — 작가 계층의 측면과 이념적 측면
- (9) 가사의 국문학사적 의의
- (10) 정극인의 「상춘곡」→송순의 「면앙정가」→정철의 「성산별곡」의 영향 관계
- (11) 시조에 나타난 선인들의 풍류 양상
- (12) 조선시대 가사에 나타난 풍류 양상
- (13) 「면앙정가」에 나타난 풍류 정신과 자연 친화 사상
- (14) 시조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자연관과 윤리관
- (15)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에 대한 미의식과 가치관

- (16) 자연에 대한 선인들의 태도
- (17) 유교 이념의 표출
- (18) 옛 선인들의 삶의 자세
- (19) 조선 전기 가사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삶의 모습
- (20) 시대적·사회적 배경이 시조의 내용에 미친 영향
- (21) 선인들의 자연관과 현대 산업 사회에서의 계승 문제
- (22) 과학 문명 시대인 현대에 고시조가 지니는 의의

위의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본다면 아래와 같이 8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1) ~ (4) . 시조·가사의 형태적 특성과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연계한 지도
2. (5) ~ (7) . 작품의 표현법과 시적 형상화를 통한 미적 기능의 지도
3. (8) ~ (10) . 조선 전기 시조·가사의 국문학사적 의의 지도
4. (11) ~ (16) . 조선조 사대부들의 풍류 양상과 자연관에 대한 지도
5. (17) : 유교 이념과 윤리관이 시가에 반영된 양상 지도
6. (18) ~ (19) 조선 전기 시조·가사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지도
7. (20) . 시가에 반영된 시대적·사회적 배경 지도
8. (21) ~ (22) : 고전 시가 작품의 현대 산업 사회와의 연계성 지도

위의 8개 항목을 토대로 산수시가 지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항과 6항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풍류 양상과 자연관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에 대한 지도이다. 이에 대한 지도의 방향은 II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을 정복이나 지배의 대상이 아닌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 질서에 의해 운행

되며 현상을 초월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사유하였다. 즉 자연을 성리학적 이념의 표상으로, 대자연의 생명 질서와 천지 운행 등의 理法을 탐구하여 그 근원과 본질을 깨닫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의 산수생활은 自然之性을 통해 자신의 本然之性을 깨달아 ‘至於至善’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성리학적 이념의 실천이었다. 또 그들은 자연을 白足의 空間으로 인식하였다. 성리학적 이념과 자연합일의 경지에서 물욕과 명리를 떠난 검소·검약하는 생활을 통해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인생관 속에서 유유자적한 심경이 되어 정신적 자유와 심정적 만족을 구가하였다. 또 그들은 자연을 唯美的 形象으로 인식하였다.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른 정치적 좌절이라는 현실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활 공간을 관념적인 이상향으로 설정하여 자연을 감상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산수애호를 통해 산수경물 자체의 속성과 본래적 모습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어 자연을 유미적 형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老莊思想의 현실 도피적이고 소극적이며 염세적인 삶의 태도와는 다르다. 즉 조선조 사대부들의 산수생활은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산수시가를 지도할 때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산수생활을 현실도피적이고 소극적이며 염세적인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수시가의 풍류 양상의 지도에서는 고려시대의 경기체가인 ‘한림별곡’류의 음주와 가무로 이어지는 관능적 향락과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5항과 7항에 나타나는 항목은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서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도와 연관성을 가진다. 왜 조선조 사대부들은 산수생활을 동경하고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당쟁과 결부시켜 지도하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江湖歌道の 형성 原因인 ‘黨爭下의 明哲保身’과 ‘致仕客의 閑適’은 자연미의 발견의 遠因이며, 根本 原因은 조선조의 문화적 환경인 유학에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조선조 산수시가에는 삶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 도피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은 찾아볼 수 없고, 세속적 이욕과 명리를 떠난 산수생활을 통해 학문과 수신에 뜻을 두었던 사회적 기풍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8항은 조선조 산수시가 교육을 현실의 실용적 문제인 환경 교육과의 연계성 지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III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산수시가에 나오는 작품 지도를 통해 선인들의 자연친화 의식과 안빈낙도 사상도 가치 있는 삶의 태도임을 인식시켜, 현실의 삶에서 지나친 물욕과 명리를 중시하는 삶에 대해 자각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정신적 풍요에 있음도 인식시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발전하는 문명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케 하는 것이다. 또 현재의 자연 파괴 및 환경 오염에 대한 각성과 함께 자연은 인간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요 안식처이며 종착지임을 깨닫게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3항은 조선조 전기의 산수시가가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도이다. 이는 조선조 전기 산수시가가 후대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맹사성의 '江湖四時歌', 이황의 '陶山十二曲', 이이의 '孤山九曲歌', 이현보의 '漁父歌', 정극인의 '賞春曲', 송순의 '俛仰亭歌'와 같은 작품을 예로 들어 이 작품들은 후대의 산수시가에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문학사적 의의가 큰 작품임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1항은 시조와 가사의 장르적 특성을 밝히고 그것이 시가작품의 미의식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시조·가사 장르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지도의 차원을 떠나 작품이 지니는 미의식이 이러한 장르적 특성과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2항은 각 작품이 지니는 독특한 표현법을 찾아내고 그 표현법이 지니는 미적 기능은 무엇인가? 또 작품에 나타난 이념과 가치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가? 각 작품의 지니는 운율적 특성과 작품의 내용과는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도하는 문제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산수시가 수업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기술을 계발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이 조선조 산수시에 흥미를 느껴 능동적인 참여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수업 절차 모형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⁵¹⁾에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문학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지도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감상에 부담을 주거나 간섭하지 말고, 감상의 방법이나 감상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차원의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문학의 주요 개념들을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통해 습득하게 하고, 습득한 문학 이론이 다른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미 습득한 개념을 기계적으로 다른 문학작품에 무리하게 적용시킴으로써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어, 어떤 작품에 적합했던 개념이 다른 작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도 보여 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문학작품은 그 작품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평가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작품 해석과 평가에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작품의 의미는 작품과 독자가 맺는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함으로써 그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을 수용하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창조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문학작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삶과 관련지어 그 가치를 파악

51) 교육부(1992.10.3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문학은 가치 추구의 한 과정이며, 그 가치는 개인이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가치들을 수용자의 구체적인 삶과의 관련하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항을 토대로 산수시가 지도의 방향을 수용자인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 이를 실제 수업 모형에 적용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조사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산수시가 지도 내용으로 하고, 지도 방법은 구인환 외 '시수업의 절차 모형'⁵²⁾과 최현섭 외 '문학 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서정 장르의 경우)⁵³⁾을 참고로 하여 산수시가 지도의 수업 절차 모형과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위의 시 수업의 절차 모형은 “계획 단계→진단 단계→지도 단계→평가 단계→내면화 단계”의 5단계를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다루어질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 계획 단계는 단원 학습의 전반적인 학습 준비 단계로서 학습 목표의 선정과 평가 항목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학습 목표의 선정은 단원 학습의 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항목으로, 학습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으며,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또 평가 항목의 작성을 통해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 파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단 단계는 실제 수업에서 다루게 될 시의 이해도에 대한 예비 지식을 진단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이 시에 대한 지식의 수준, 시의 소재나 분위기를 수용할 수 있는 체험의 축적도, 시적 감수성의 수준 등을 진단하는 단계이다.

셋째, 지도 단계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수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계획 단계와 진단 단계에서 구상하고 준비했던 사항을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작품에 대한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의 방법을 거쳐, 다시 종합하는 과정이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의 장이요, 학습의 장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업의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52) 구인환 외(1999), 「문학교육론 (제3판)」, 삼지원, pp.268~269

53) 최현섭 외(1999),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pp.390~391.

넷째, 평가 단계는 지도 단계에서 학습했던 요소들을 진단하는 단계이다.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는 토론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학생들로 하여금 구두 발표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는 필답식을 원용한 방법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평가 문항은 계획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내면화 단계는 학습자들의 작품 감상의 정도를 파악해 보는 단계이다. 정서적 감응을 받는 단계로 시를 자신의 체험으로 환원하여 감수성을 세련시키고 상상력을 키우며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시를 읽고 난 후의 감동을 쓰게 하거나 작가의 사상과 자신의 사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 보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위의 지도 단계에 입각해서 「도산십이곡(前一曲, 後一曲)」을 대상으로 수업 절차 모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표-1> 수업 절차 모형

단 계	교 수 · 학 습 내 용
계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설정 ◦ 작품을 현시(presentation)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학습 과제물 선정 ◦ 평가 문항 및 내면화 문제 작성 ◦ 교수 · 학습안 설계
진단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수시가에 대한 미적 체험의 축적도 진단 ◦ 조선조 정치 · 사회적 배경과 고전시가의 연관성의 이해 정도 진단 ◦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관에 대한 이해의 정도 진단 ◦ 조선조 사대부들의 풍류 양상에 대한 이해 정도 진단
지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흥미 유발-도산서원 및 주변의 산수 경관 제시 ◦ 과제물 확인-작가의 생애와 도산서원에 대해 발표하기 ◦ 학습 목표 제시 · 연시조의 형식적 특성 파악하기 · 작품의 국문학사적 의의 파악하기 · 조선조 정치 · 사회적 환경 파악하기 · 작품에 반영된 풍류양상과 자연관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반영된 성리학적 이념 파악하기 ·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미의식과 가치관 파악하기 · 제주의 자연 환경에 대한 미적 안목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개괄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낭송-시범 낭송 및 개별 낭송-정서적 감응 유발 · 연시조의 특징 파악하기 · 작품의 국문학사적 의의 파악하기 · 작가가 산수생활을 하게 된 동기 파악하기 · 작가의 자연 인식 양상 파악하기 · 작품에 반영된 성리학적 이념 파악하기
지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장의 의미 분석(핵심 어구를 통한 의미 구조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야우생(卓野愚生)’의 삶 — ‘천석고황(泉石膏肓)’의 의미 — ‘만권생애(萬卷生涯)’의 의미 — ‘왕래풍류(往來風流)’의 양상 ◦ 작품에 대한 종합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가 바라는 가치 있는 삶의 방식 (작가의 자연관, 풍류 양상, 가치관을 연계한 총체적 입장에서 파악)
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평가 문항 제시
내면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내가 퇴계 선생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창조적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 오세요.(200자 원고지 5매 분량) ◦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제주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섯 가지 이상 적어 오세요.

위의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산수시가를 지도하면,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이라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고전시가 흐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사와 학생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생들이 흥미와 의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심미적 감상의 단계로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대부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

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체득하여 학습자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는 산수시가 지도의 한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창안하고 강구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들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수·학습 모형 구안

앞에서 제시한 수업 절차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도산십이곡(前一曲, 後一曲)'에 대한 1차시분을 수업안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분량으로 볼 때 1차시분으로 마무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문학교과서에는 '도산십이곡' 전부분을 수록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수록하고 있다. '前六曲'을 대표하는 것이 '前一曲'이고, '後六曲'을 대표하는 것이 '後一曲'이다. 그래서 '前一曲, 後一曲'을 수업안으로 제시하여 '도산십이곡'의 전체적 흐름을 지도하는데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소 많은 분량을 제시한다.

<표- 2> 교수·학습 모형 구안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흥미 유발 ○ 학습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서원 및 주변의 산수경관 제시 ○ 과제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생애와 도산서원에 대해 조사해 온 것 발표하기(각 1명씩)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산수도(경제정선) · 1000원권 지폐 OHP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 학습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시조의 형식적 특성과 파악하기 ○ 작품의 국문학사적 의의 파악하기 ○ 조선조 정치·사회적 환경 파악하기 ○ 작품에 반영된 풍류양상과 자연관 이해하기 ○ 작품에 반영된 성리학적 이념 파악하기 ○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미의식과 가치관 파악하기 ○ 제주의 자연 환경에 대한 미적 안목 기르기 			
전개	○ 작품에 대한 개괄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시범 낭송 - 시의 분위기와 리듬 파악을 통해 정서적 감응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지도 ○ 연시조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 윤선도의 '오우가'를 예로 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시조는 여러 개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이루어진 시조 형식의 명칭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평시조는 고유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전체적인 주제에 통합된다. 	35분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p>○ 윗시의 작가는 자신의 택한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p> <p>○ 작가는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 보충 설명: 사대부들의 도회지 생활이란 곧 벼슬길을 의미합니다.</p> <p>○ 왜 작가는 벼슬길을 떠나 산수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일까요? 윗시를 근거로 대답해 보세요.</p> <p>○ 작가가 연구했던 학문은 어떤 학문입니까?</p> <p>○ 성리학이란 어떤 학문입니까? 윤리 시간에 배운 기억을 되살려 답하여 보기를 바랍니다.</p>	<p>○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은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p> <p>○ 도회지가 아닌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p> <p>다</p> <p>○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p> <p>○ 성리학입니다</p> <p>○ 성(性)의 대상은 인간이고 이(理)의 대상은 자연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 자연의 이법(理法)과 천지 운행의 질서 등 근원적인 현상의 본질을 연구하여 인간의 본성을 밝히려는 학문입니다.</p>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p>○ 그러면 작가는 자연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p> <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p> <p>- 조선조 사대부들이 자연을 동경하게 된 데에는 당쟁이라는 정치 상황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자연미를 발견하게 된 근본원인은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조 사대부들의 노래에는 현실 도피적이고 염세적인 면보다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노래하는 작품이 많기 때문입니다</p>	<p>○ 성리학적 이념을 궁구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연합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p>		
	○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	<p>○ 앞에서 살펴봤던 작가의 자연관과 성리학이란 학문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에 대해 실제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p> <p>▷ 前 曲(전일곡)</p> <p>○ '이런 돌'과 '더런 돌'은 어떤 삶의 방식을 대비시킨 것입니까?</p>	<p>○ 관리로서의 삶과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평범한 선비의 삶을 대비시</p>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p>'초야우생(草野愚生)'과 연 관시켜서 말해봅시다.</p> <p>○작가의 그런 삶이 구체 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 어는 무엇이며, 작가는 그 런 삶에 대해서 어떤 입장 을 취하고 있습니까?</p> <p>○'천석고황(泉石膏肓)'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설명: '천석'은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며, '고황'은 몸 속에 생긴 고칠 수 없 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자연 을 깊이 사랑하여 생긴 병 으로 육체의 병이 아닌 마 음의 병입니다. 즉, 산수생 활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깨닫고자 하는데서 생긴 자연친애의 고질적인 성향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 니다.</p> <p>○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 시의 작가는 어 떤 삶을 살고 싶어합니까?</p> <p>○왜 그런 삶을 바라는 것 일까요?</p>	<p>키고 있습니다.</p> <p>○'천석고황으로 드러나 고 있으며, '고터 모습'은 '료'를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p> <p>○벼슬길에서 물러난 평 범한 선비로서 자연에 물혀 삼라만상의 이법 (理法)을 탐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p> <p>○작가는 그런 삶을 벼 슬살이보다 더 가치있는 삶으로 여기기 때문입니 다.</p>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p>▷ 後一曲(후일곡)</p> <p>○ 초장은 작가의 생활 공간인 도산 서당 주위의 산수 유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작가의 기품(氣稟)을 상상하여 보세요</p> <p>○ '만권생애(萬卷生涯)'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락재(玩樂齋)'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p> <p>- 보충설명: '완락재'는 도산서당 안에 있는 건물의 이름으로 '즐거움을 사랑하는 집'이란 뜻입니다.</p> <p>○ 초·중장의 삶의 모습이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시어를 찾아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p>	<p>○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삶으로, 맑고 깨끗한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p> <p>○ 작가의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p> <p>○ 왕래풍류(往來風流)입니다. 도산서당 주위의 산수를 즐기는 생활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며, 유교의 경전을 연구하여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 또 후학들을 교육하는 삶을 풍류로 보고 있습니다.</p>		
	○ 작품에 대한 종합적 접근	○ 두 시를 종합하여 볼 때, 작가가 바라는 가치있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각 자 100자 정도로 정리하여 보도록 하세요.	○ 작가는 벼슬길에서 물러나 평범한 선비로서 자연에 묻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대자연의 이치를 궁구하고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성현의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가르치는 것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학습내용 확인을 위한 형성평가 ○ 과제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평가 문항 제시 ○ '만약 내가 퇴계 선생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창조적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 오세요.(200자 원고지 5매 분량) ○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제주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섯 가지 이상 적어 오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문제 해결하기 ○ 다음 시간에 발표하기 	10분	

◆ 형성평가 문제◆

- ▷ 이 작품이 국문학사적으로 지니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 ▷ 작가는 자연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무엇입니까?
- ▷ 작가의 풍류 양상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풍류의 양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 작가는 어떤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V. 결 론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길러서 전통적인 산수시가의 아름다움과 산수관을 이해하는 감상 능력을 함양하고 총체적인 문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고전시가 이론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고등학교 문학교과는 교사 중심의 지도로 작가와 작품의 대략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어휘의 주석적 설명을 통한 주제를 파악하는 정도의 다소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고전문학 학습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여 교사와 학생간에 정서의 공유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문학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학교과 수업 방안으로 기본적인 이론 교육 지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양상과 산수시가의 형성 요인인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고찰, 조선조 사회의 사상적 배경인 성리학적 이념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조선조 산수시가의 대표작인 퇴계의 「陶山十二曲」과 丁克仁의 「賞春曲」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산수시가를 감상하는 안목을 길러주려 하였으며, 아울러 환경 교육과 연계한 지도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朝鮮朝 山水詩歌 指導의 基本 方向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18종 문학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고전시가 중 조선조 산수시가에 그 범위를 한정하여 문학성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삼고자 한다.

1.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과 작품에 반영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조선조 산수시가 지도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의 자연 인식 양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자연을 성리학적 이념을 궁구하는 매개체로 인식하여 居敬窮理하는 학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세계로, 自然之性과 本然之性의 합일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至善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는 세속적 가치인 명리나 이욕을 떠난 무욕의 심경 속에서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自足の 空間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는 자연을 정치적 좌절이라는 현실적 불안과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념적인 이상향으로 설정하여 산수경물 자체의 속성과 본래적 모습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唯美的 形象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조선조 산수시가의 형성 요인은 외부 환경인 정치·사회적 환경 뿐만 아니라 사상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조선조 산수시가에 반영되고 있는 삶의 양상은 세속적 이욕과 명리를 떠난 산수생활을 통해 獨善의 즐거움과 성리학적 이념을 궁구하는 감동을 노래하거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현실의 갈등을 잊고 정신적 여유로움과 심정적 만족을 노래하며 풍류를 즐기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조선조 산수시가의 지도에 있어서 귀거래의 동기와 자연미의 발견을 당쟁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하고만 결부시켜 지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조선조 산수시가를 지도할 때는 산수시가의 형성 원인으로 당쟁이라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유학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의 반영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지도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수생활이란 소재의 공통성으로 인해 일률적이고 도식화된 ‘안분지족’, ‘안빈낙도’ 등으로만 한정하여 지도하는데, 이는 귀거래의 양상에 따라 작품을 개별화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致仕客의 閑適을 노래하는 맹사성의 「江湖四時歌」와 당쟁하의 逃避·賢者避世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윤선도의 「漁父四時詞」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3. 조선조 산수시가의 주담당층인 사대부들의 사상적 배경의 이해를 통해 당시의 문학적 특색과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리학의 性의 대상은 인간이고 理의 대상은 자연이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의 생명 질서와 천지 운행 등의 理法을 탐구하여 그 근원과 본질을 깨닫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연의 생명 질서와 천지 운행의 근원을 학문

이런 지적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것을 유교의 가치관인 禮思想으로 연결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修身과 사회생활에서의 도덕성 회복을 행위의 최고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벼슬에 나아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도덕성을 상실하거나 혹은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강요받게 되면 미련 없이 벼슬을 버리고 산수로 돌아갔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본연지성을 되찾고자 하는 이성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묘사한 山水樂과 산수는 그들의 가치관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退溪의 「陶山十二曲, 前二曲과 前五曲」을 대상으로 성리학적 사상이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조선조 사대부들의 산수생활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天理를 窮究하여 자연의 이법에 따르는 삶의 추구이며 自然之性을 통해 자신의 本然之性을 깨달아 至於至善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성리학적 이념의 실천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산수시가 교육을 현실의 환경문제와 연계시켜 지도함으로써 실용적인 교육의 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즉 산수시가 교육을 통해 사대부들의 산수애호 정신과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를 터득하게 하여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무절제한 물질 소유욕에 대한 각성과 비판을 유도하는 지도이다. 이를 통해 검소·검약하며 분수를 지키고 절제하는 삶의 태도가 가치 있는 삶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자연의 경제적 기능만을 중시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사고의 폭을 확대시켜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 및 훼손에 따른 문제를 학습자에게 인식시키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도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18종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산수시가의 학습목표와 학습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는 무엇을 지도의 중점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것은 교과서마다 독창적이고 보편적인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을 제시한다는 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수시가 지도의 주요 사항을 파악하고, 앞에서 제기한 조선조 정치·사회적 환경, 성리학

적 배경, 사대부들의 자연 인식 양상 등의 문학외적인 요소와 실용적 차원의 교육인 환경 문제와 연계한 교육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위의 지도 방향을 바탕으로 산수시가를 지도하면, 고등학교 문학교과와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창안하고 강구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려는 관점에서 고전시가의 전체적인 흐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흥미와 의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심미적 감상 차원의 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체득하여 학습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자료

- 구인환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한샘출판사(주)
- 권영민 (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주), 지학사
- 김대행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주)교학사
- 김봉균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주)지학사
- 김열규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동아출판사(주)
- 김용직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대일도서
- 김윤식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한샘출판사(주)
- 김태준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주)민문고
- 남미영 외 4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동아서적(주)
- 박갑수 외 2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주)지학사
- 박경신 외 4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금성교과서(주)
- 성기조 (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학문사
- 오세영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천재교육(주)
- 우한용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동아출판사(주)
- 윤병로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주)노벨문화사
- 이문규 외 1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선영사(주)
- 최동호 외 3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대한교과서(주)
- 한계전 외 2인(1995), 「고등학교 문학 (상), (하)」, 대한교과서(주)
- 교육부(1995),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編(1986), 「국어국문학사전」.
- 退溪學研究院(1988), 「陶山全書」(영인본), 一, 卷三, 詩, 陶山記.

2. 단행본

- 구인환 외(1999), 「문학교육론 (제3판)」, 삼지원.
김옥동(1998),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문영오(1983), 「孤山 尹善道 研究」, 태학사.
백기수(1979),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손오규(1994), 「산수문학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손오규(1998), 「山水美學探究」, 부산대학교출판부.
이동영(1998), 「朝鮮朝 嶺南詩歌의 研究」, 부산대학교 출판부.
이상익 외(1994),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조운제(1954), 「韓國詩歌史綱」, 乙酉文化社.
조운제(1984), 「국문학개설」, 탐구당.
최진원(1986),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최현섭 외(1999),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3. 논문

<학위논문>

- 강갑례(1989), “孤山詩歌의 抒情과 自然”,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강문복(1986), “고등학교 고전교과서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심혜숙(1988), “고시조 학습지도의 문학교육론적 접근—고등학교 국어 I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오창호(1991), “尹善道の <漁父四時詞>研究”,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원용문(1988), “尹善道 文學 研究”,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유부귀(1988), “고시조 감상을 통해 본 중학생들의 의식구조 연구—바람직한 고시조 지도 방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대구(1987), “고시조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 연구—국어Ⅱ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복희(1987), “고등학교 고전교과서의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길(1988), “고등학교 고전문학 교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계근(1988),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대수(1984), “고시조 교육의 실태와 지도법에 관한 연구—제주도 중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용진(1991), “시조문학의 구조 연구(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동수(1977), “고전 교과서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고전 지도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해연(1991), “가사교육에 관한 연구—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광수(1987), “고등학교 고전문학 교재의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대현(1989), “고전문학 교과서의 흐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연희(1986), “현행 고전문학교과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현덕(1983), “고전시가학습지도에 관한 연구—학력신장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상은(1991),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미의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논문>

- 고창식(1980), “고교 고전교육의 문제점”, 『어문 연구』25·26호, 일조각.
- 김기창(1989), “고전문학교육론(1)”, 『야천 이병호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 김진영(1991),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고전교육의 중요성”, 『이중언어학회』제8호,

이중언어학회.

김홍규(1992),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봄호, 한신문화사.

박병완(1992), “〈賞春曲〉의 分析的 研究”, 『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박영주(1983), “상춘곡의 작품구조와 자연관”, 『성대문학』22집, 성대국문학과.

문학교육연구회(1987), 『삶을 위한 문학교육』.

손오규(1998),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백록어문』14집, 백록어문학회.

손오규(1998), “陶山十二曲의 심화과정 교과지도의 방향”, 『퇴계학논총』,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손오규(1999), “歌辭의 문학교과지도 視點 ; 상춘곡, 사미인곡, 우부가를 중심으로”, 『백록어문』15집, 백록어문학회.

여기현(1999), “江湖認識의 한 樣相”, 『조선조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반교어문학회 편, 보고서

윤귀섭(1969), “歌辭의 東洋美的 表出”, 『同大論叢』1호, 同德女子大學.

정원균(1992), “君恩의 표현과 서정성의 문제”,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한창훈(1999), “古典詩歌 敎育論 序說”, 『백록어문』15집, 백록어문학회.

허남춘(1999), “士林派 詩歌에 나타난 자연관과 서정”, 『조선조 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반교어문학회 편, 보고서.

<Abstract>

A Study on San-Su Poetry Teaching in High School Literature

Hong, Chul-hwa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teach the basic literary theory of classical San-su poetry, nature poetry, in order to make students develop the literary knowledge, appreciate the poets' view of nature and the beauty of classical nature poetry, and improve the whole ability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literature. Under the current literature class situation in high schools, teacher-centered, the teacher explains the writer's though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iterary works and some difficult vocabulary in them, making students understand the subjects of literary works through his or her explanation. As a result, students seem to be very passive during class, losing the goal to lear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Since the teacher and students cannot share the feeling and appreciation of literary works, it is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teacher to lead an active and students-centered class.

This study presents new ways on the basic theory teaching in a literature class in order to solve above matters as follow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First, it is needed to teach *Sadaebu*, the gentry' general view of nature in relation to *San-su* poetry. Because the analysis and the appreciation of *San-su* poetry cannot be achieved until the poets' view of nature is not understood. This way allows students to develop a variety of an eye for the stream of classical poetry, by interpreting nature poetry during Yi Dynasty as not only escape from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such as *Dangjaeng*, party strife, but also poet's effort to practice Confucian ideas in real life.

Second, it is needed to teach *San-su* poetry connecting with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Yi Dynasty. *Sadaebu* seemed to return home after their resignation from a government office, mainly because of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Yi Dynasty. Most of *San-su* poetry mainly dealt with poets' resignation from public life to protect themselves from party strife, their quiet and free life in nature after resignation, or other wise men's retirement from the real world. Nevertheless, *San-su* poetry in high school is taught only under the view of "contentment with the situation", or "contentment with poverty and delight in the Taoist way". Therefore *San-su* poetry needs to be taught in groups according to the aspect of homecoming after resign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teach thoughts involved in *San-su* poetry. Understanding those of *Sadaebu*, the main poets during Yi Dynasty, can help catch how the poems reflects the poets' view of world and their sense of beauty. This way allows students to recognize the then current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and poets' academic world, realize the real value of poems, and, at last, aesthetically appreciate them.

Fourth, it is necessary to teach *San-su* poetry connecting with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it's one of practical activities of education. It means that literature education can go far in recognizing reality and solving the problems in real life. Accepting *Sadaebu*'s love for nature and acquiring their way of life such as contentment with poverty and delight in the Taoist way, Students will recognize the serious problems in modern society such as destruction of natur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other words, in realizing the value of nature and criticizing the excessive desire to possess material, students will set up their own values that human and nature coexist.

The final chapter analyzes the learners' aims and activities which *San-su*

poetry in 18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has, and select the common elements. This can help to know what should be essentially taught. Of course, each textbook is considered to have its own learners' aims and activities. In addition to this, new syllabus is presented. To do this, several things are considered; the major points taught with *San-su* poetry,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Yi Dynasty, some elements affected by Confucianism, *Sadaebu's* view of nature, practical teaching related to environmental problems.

With this ways, the teacher can develop new teaching approach and more efficient syllabus of high school literature teaching, allowing students to understand the general aspects of classical poetry. Moreover, the response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can let students interested in literature, and in the long run, develop their aesthetic appreciation of literature. Understanding *Sadaebu's* view of nature and their attitude toward nature, students will set up their own values



[부록] ◆ 연구 대상 작품 학습 요소 ◆

<단원명, 작품명, 학습 목표, 학습 활동>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박 감 수 외 (상)	지학사	2. 이념(理念)과 정감(情感)의 시조 (2) 한정(閑情)과 연모(戀慕)	· 대초 불 불근 굴에 · 장안을 도라보니	황희 이현보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 작품 속에 담긴 풍류와 연모의 정을 음미한다 		2.(1) '황희'의 시조에서 자연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2) 이현보의 시조에서 서정적 자아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지 말해보자. 4. 조선 전기 시조의 국문학사적 의의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보자. (1) 작가계층의 측면 (2) 이념적 측면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박 감 수 외 (상)	지학사	1. 시조 미의식의 확장 (1) 충의(忠義)와 산수(山水)	· 보리밥 뜻늬물을 · 잔 들고 혼자 안자	윤선도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박감수 외 (상)	지학사	1. 시조 미의식의 확장 (2) 풍류와 해학	· 전원(田園)에 나른 흥 (興)을 · 높으랴 나즈랴 흐며	김천택 안민영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조의 주제 변화를 시대적 상황 변화와 관련시켜 알아본다. · 연시조의 형식적 특성과 작품 세계를 이해한다 		1 (3) 윤선도의 시조 제목은 '만흥(漫興)'인데, 시조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자. (4) 윤선도의 시조에서 '먼 뉘를 바라보니'에 담긴 시적 정서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반 의식과 평민 의식의 교체 양상을 안다. • 사설시조의 해학성을 시조 형식의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한다. 	2 (1) 김천택과 안민영의 시조에 나타난 풍류의 맛을 찾아보자. (2) 안민영의 시조에 나타난 두드러진 표현 기교를 찾아보고, 그것이 시적 효과를 생각해 보자. (3) 김천택과 안민영의 시조에 드러난 주제 의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자.
--	---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김 봉 군 외 (상)	지학사	3. 사대부(士大夫)의 노래 (2) 조선 전기 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해야 •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에서 •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에서 	송 순 맹사성 이 황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전기 시조의 특징을 안다. • 조선 전기 시조의 전개 양상을 안다. 		2. (1) 각 시조의 내용을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미해 보자. (2) 시대적 배경이 시조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보자 3. (2) 조선 전기 시조에서, 유학자의 이념이라 할 불사이군(不事二君)과 안빈낙도(安貧樂道)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3) '자연'의 시조에서 당시 사대부들의 자연관을 생각해 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김 봉 군 외 (상)	지학사	2 이념(理念)과性情(性情), 그리고 해학(諧謔) (2) 자연(自然)과 인정(人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는 거시 벽구기가 • 강산 조흔 경(景)을 • 초암(草庵)이 적료(寂寥)헌디 • 보람이 눈을 모라 	윤선도 김천택 김수장 안민영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조에 나타난 선인들의 풍류 생활을 살펴본다. 		1. (1) 윤선도가 시조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자.		

<p>• 자연에 대한 선인들의 태도를 안다</p>		<p>(2) 이 시조를 현대어로 풀이해 보자</p> <p>(3) 제재, 주제, 시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해 보자.</p> <p>(4) '어부사시사'의 전체 형식과 본문 시조와의 관계를 알아보자.</p> <p>(5) 대구법, 의성법, 반복법의 묘미를 설명해 보자.</p> <p>(6)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를 살펴보자.</p> <p>2. (1) 김천택이 시조 문학에 기여한 바를 조사해 보자.</p> <p>(4) 세속의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비판한 구절을 찾아보자.</p> <p>3. (1) 안민영이 주축이 된 평민 가객의 모임을 알아보자.</p> <p>(4) 의인법과 설의법이 사용된 곳을 찾아 표현의 묘미를 감상해 보자.</p> <p>(5) '바람과 매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자.</p> <p><토론 학습>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려는 한국인의 자연관이 현대 산업 사회에서 어떻게 계승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저자</th> <th>출판사</th> <th>소단원명</th> <th>작품명</th> <th>작가</th> </tr> </thead> <tbody> <tr> <td>김윤식의(상)</td> <td>한샘출판</td> <td>3. 국문 문학의 정착과 시가의 난숙 (3) '대초 불 불근 골에' 외</td> <td>· 대초 불 불근 골에 ·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에서 ·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에서</td> <td>황희맹사성이 황</td> </tr> </tbody> </table>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김윤식의(상)	한샘출판	3. 국문 문학의 정착과 시가의 난숙 (3) '대초 불 불근 골에' 외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김윤식의(상)	한샘출판	3. 국문 문학의 정착과 시가의 난숙 (3) '대초 불 불근 골에' 외	· 대초 불 불근 골에 ·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에서 ·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에서	황희맹사성이 황						
<p>학습 목표</p>		<p>학습내용(활동·문제)</p>								
<p>시조는 조선 전기에 와서 국문 서정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p>		<p>1 황희 시조에 나타난 풍류 정신을 음미해 보자.</p> <p>1. 「강호사시가」를 다음 질문과 관련하여 재음미해 보자.</p>								

<p>이 시기에 와서 시조가 사대부의 생활 정서와 아울러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애정의 영역까지 시의 대상으로 삼게 된 점을 주목하자.</p>	<p>(1) 첫째 수에서 '미친 흥(興)'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둘째 수에서 자연과 인간이 일치될 나 타내는 시어를 찾아보자.</p> <p>2. 「도산십이곡」의 의미를 다음 질문을 통해 되새겨 보자.</p> <p>(1) 제1곡에서 '고터'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2) 제10곡에서 '길'의 의미를 분석해 보자.</p>
--	---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김 윤 식 외 (상)	한샘 출판	4. 평민 의식의 성장과 산문 문학의 발달 (1) '가노라 삼각산아' 외	· 잔들고 혼자 안자 · 전원(田園)에 나쁜 흥(興)을 · 어리고 성권 매화(梅花)	윤선도 김천택 안민영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조선 후기의 시조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변모를 보인다. 자연미의 완상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표출하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창작되고 수용되었음에 유의한다.</p>	<p>2. 윤선도의 시조에서 서정적 자아와 '먼 뒨'가 혼연 일체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먼 뒨'의 성격에서 찾아보자.</p> <p>3 김천택의 시조에서 서정적 자아는 '전원(田園)'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오는 지 말해 보자.</p>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한 계 전 외 (상)	대한 교과서	2. 비유와 상징 (2) 고시조(古時調)	· 오우가(五友歌)	윤선도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3 '오우가'의 서시(1연) 부분에 표현된 시인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p> <p>5. '오우가'처럼 자연 대상을 빌려 시인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다른 시조를 찾아 읽어보자.</p>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한 계 전 외 (하)	대 한 교 과 서	1. 인생의 교사 (1)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도산십이곡(陶山十二 곡)	이 황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해제> 자연에 동화된 생활을 노래한 전 6곡과, 학문 수양 및 학문애를 표현한 후 6곡으로 된 연시조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산십이곡'의 나머지 작품을 읽어 보고, 학문의 과정과 작자가 바라는 이상 사회에 대하여 설명해 보자. 2. '도산십이곡' 중에서 수사적인 측면에서 연쇄법을 사용하고 있는 연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자. 3. '도산십이곡' 중에서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구성으로 짜인 연을 찾아보자. 4. '도산십이곡 발(跋)'에 표명된 작자의 문학과, 이 작품이 시조 문학사에서 갖는 의의를 이야기해 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이 문 규 외 (하)	선영사	3. 조선 전기의 문학 (4) 몽유록(夢遊錄)과 소설의 등장 ○조선 전기의 시조	· 대초 불 불근 골에 · 이련돌 엇다흐며 · 말 업슨 청산(靑山)이 요 · 高山九曲潭(고산구곡 담)을	황 회 이 황 성 혼 이 이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해제>고려 말경에 등장한 시조는 조선 전기에 이르러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 시기의 초기엔 회고나 절의(節義)의 노래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점차 자연 예찬(自然禮讚), 유교 윤리의 선양(宣揚), 남녀의 애정을 노래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어 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 전기 시조들의 일반적 특징을 조사해 보자. 2. 이 시조들의 소재와 주제를 말해 보자 3. 이 시조들의 표현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4. 이 시조들을 현대어를 바꾸어 표기해 보자. 5. 조선 전기의 시조들로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조사해 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이 문 규 외 (하)	선영사	4. 조선 후기의 문학 (4) 민속극(民俗劇)의 성행 ○ 조선 후기의 시조	·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 잔들고 혼자 안자 · 초암(草庵)이 적료(寂寥)한디 · 강산(江山) 조흔 경(景) (景)을	신 흥 윤선도 김수장 김천택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1. 이 시조들의 갈래를 말해 보자. 2. 이 시조들의 소재와 주제를 말해 보자 3. 이 시조들의 표현상의 특징을 말해 보자. 4. 조선 후기 시조들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조사해 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오 세 영 외 (상)	천재 교육	3 중세 후기 문학 (1) 시조에 담긴 뜻과 서정 ○ 자연의 의미, 인간의 길	·江湖(강호)에 구름이 드니 ·十年(십년)을 經營(경 영)하야 ·古人(고인)도 날 못 보고	맹사성 김장생 이 황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사대부는 자연을 노래한 시조를 통해 세과에 찌든 마음을 씻고 정신적 안식을 찾았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 또한 시조의 중요한 주제였다. · 시조에 나타난 사대부의 자연관과 윤리관을 이해한다. · 관념의 시적 형상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 문제> 1. 본문의 시조들을 기초로 하여, 시조 종장이 시상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2. 본문에 실린 두 편의 여성(기녀) 시조는 사대부들이 지은 시조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해 보자. <토론 과제> 1. 본문에 실린 시조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3. 본문의 작품들을 기초로 하여, 과학 문명의 시대인 현대에 과연 시조가 어떤 의의를 지닐 수 있는지 논의해 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오 세 영 외 (상)	천재 교육	4. 근대 여명기 문학 (2) 시조 문학의 지속과 변 화 · 강호 자연의 風情(풍정)	· 어부사시사 · 山村(산촌)에 눈이 오 니 · 草庵(초암)이 寂寥(적 료)혼디	윤선도 신 흙 김수장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우리 선인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 의 안식을 회구하거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 생활 속의 자연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알아본다. · 자연 생활의 시적 형상화가 주는 문학적 감동을 이해한다.		<p><확인 문제></p> <p>1. '어부사시사'의 후렴구는 어떠한 문학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p> <p>2. '초암이 적료혼디'에 자부심이 엿보인 다고 할 때, 그 근거를 어느 부분에서 찾 을 수 있는가?</p> <p><연구 문제></p> <p>1. '산촌에 눈이'에 나타난 이미지를 스케치 로 옮겨 보자.</p> <p><토론 과제></p> <p>1. '산촌에 눈이'가 주는 느낌은 '평화로움' 과 '쓸쓸함'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깝다 고 생각되는지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자</p>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박 경 신 외 (상)	금 성 출 판사	1. 시의 특성과 갈래 · 평시조 3수	· 功名(공명)을 즐겨마 라	김삼현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해제> 시조는 고려말에 정형이 확 립된 우리 문학의 대표적 서정 갈래 의 하나이다. 4음보의 안정된 율격 과 간결하고 단아한 형식은 당시 유 학자들의 미의식을 보여 준다.		3. 김삼현의 작품에서 '두려운 일'은 무엇인 지 두 가지로 지적해 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박 경 신 외 (상)	금 성 출 판사	3. 시의 내용과 주제 · 어부사시사	· 어부사시사	윤선도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1.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 사이에 들어 있는 조흥구의 기능을 말해 보자.		

<p><해제> 조흥구(助興句)를 결들임으로써 단형의 평시조에 변화를 준 연시조이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고 대구법, 원근법, 시간의 추이에 따른 시상 전개와 조화 등 표현기교가 뛰어나다.</p>	<p>2. 전체 40수의 작품에서 조흥구의 규칙성을 정리해 보고, 그것이 작품 전체의 구조에서 가지는 의미를 말해 보자. 3. 이 작품을 이현보의 '어부가'와 비교해 보자.</p>
---	--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박경신 외(하)	금성출판사	1. 형식에 따른 감상 1-2. 시의 심상과 회화성 · 평시조 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 · 말 업슨 南山(청산)이요 · 草庵(초암)이 寂寥(적료)한터 · 江山(강산) 杳혼 景(경)을 	월산대군 성혼 김수장 김천택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해제>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속에 주제를 압축하여 형상화하는 만큼, 참신한 표현과 선명한 심상의 제시가 요구되는 문학 형식이다. 다음 작품들에서 시조의 이러한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p>	<p>3 월산 대군의 작품에서 '빈 배 저어 오노라'에 담긴 지은이의 심리 상태를 설명해 보자</p>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최동호 외(상)	대한교과서	1. 시의 본질과 특성 (2) 시조 2편	· 江湖四時歌(강호사시가)	맹사성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최초의 연시조인 '강호사시가'를 통하여 옛사람의 풍류 정신과 자연관을 이해한다.</p>	<p>4. '강호사시가'는 총 4연으로 되어 있는데, 매 연이 '江湖(강호)에'로 시작해서 '亦君恩(역군은)이샀다'로 끝맺는다. 이 시조의 나머지 두 수를 찾아 읽고, 이러한 형식적 특징이 이 시조의 의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p>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최 동 호 외 (하)	대 한 교 과서	2. 자연과 향수 (3) 시조 4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십이곡:언지(言志)이 황 六 -春風(춘풍)에 花滿山 (화만산)호고 · 어부사시사:春詞四 -우는 거시 벽구기가 · 江山(강산) 조흔 景 (경)을 · 草庵(초암)이 寂寥(적 료)흔디 	이 황 윤선도 김천택 김수장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 대한 선인의 태도를 이해한다 · 옛 사람의 풍류 정신을 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는 다같이 세속의 현실을 떠나 강호의 맑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자연을 수용하는 태도의 측면에서는 다소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두 작품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2.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의 나머지 작품을 모두 찾아서 읽어보고, 전체적인 시적 의미를 알아보자. 3. 전문적인 가객의 작품인 '강산 조흔 경을'과 '초암이 적료흔디' 역시 두 작품 모두 자연의 세계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로 볼 때, 서로 대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4. '초암이 적료흔디'는 한 폭의 그윽한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이 시조의 회화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윤 병 로 외 (상)	노 벨 문 학사	2. 시의 세계 ④ 시조 문학 ◦ 고시조	· 여튼 갠 고기들히 · 어리고 성근 가지	윤선도 안민영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1. 시조의 기본 형식을 안다 2. 시조에 나타난 선인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한다. 3. 현대 시조의 특징을 안다 4. 시조가 국문학의 발달에 끼친 영향을 안다		1. 이 작품에 나타난 어휘의 뜻을 현대어로 새겨보자. 2 이 시들에 나타난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3. 연시조는 어느 시대부터 나타났는지 알아보자. 4. 시조가 비교적 소박하고 안정감을 주게 되는 형식적 요인에 대하여 말해 보자. 5 위의 각 시조에 나타난 주제에 대하여 말해 보자. 6 위의 각 시조에서 작가의 감정이 이입되어 나타난 시조를 찾아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김 태 준 외 (하)	민문고	2. 인간과 자연의 탐구 (3) 자연과의 교감	· 陶山十二曲(도산십이곡) · 漁父四時詞(어부사시사)	이 황 윤선도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 자연이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이해한다 ·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동·서양의 문학에서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한다 ·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한다.		1. 두 작품에 나타난 자연관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자. 2 <도산십이곡>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1) '초야우생(草野愚生)'과 '천석고황(泉石膏肓)'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청산(靑山)'과 '유수(流水)'의 어떠한 속성이 주제와 관련되는가? (3) 1곡과 11곡에 나타난 자연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자		

		3. <어부사시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1) 이 작품이 현실감을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 이 시조를 언어미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자.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권영민 외(상)	지학사	3 시의 요소 • 작품 감상 • 漁父四時詞(어부사시사)	• 漁父四時詞(어부사시사)	윤선도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작품을 통해 연시조의 형태적 특성을 알아보자. 이 작품을 통해 옛 선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부사시사'가 형태상 일반 시조와 다른 점을 지적해 보자. 이 작품에서 반복되는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시적 기능을 생각해 보자. 이 작품에서 계절적 감각을 살려 주는 시어들을 찾아보자. 셋째 수[秋詞]에 사용된 표현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연시조의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을 알아보자.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성기조 외(하)	학문사	1 시와 현실 상황 • 漁父四時詞(어부사시사)	• 漁父四時詞(어부사시사)	윤선도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해제> 고산(孤山)이 전남 보길도 부용동에서 은거할 때,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 오는 '어부가'를 참작하여 지은 노래로, 사시(四時)의 어부 생활과 자연 경관을 생생하게 그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부사시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어부사시사'는 형식면에서 다른 시조와 어떻게 다른가? (2) 각 수(首)의 제재와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3) 이 작품의 국문학사상 의의를 알아보자. 		

		2. 이 작품을 읽고 다음에 관해 토의해 보자. · 조선조 사대부들의 은둔 사상		
		3. 다음 작품들을 더 읽어 보자. (1)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2)이이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김 대 행 외 (상)	교학사	1. 시의 언어 (1) 띠암이 밍다 울고 외	· 띠암이 밍다 울고 · 靑山도 절로절로	이정신 미상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 시조의 음과 의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 시조가 형상화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 · 시조가 노래하는 것과 현실의 관계를 생각하며 읽는다		1. 세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을 공부하자. (1) 첫째 시조의 주제는 무엇인가? (2) 둘째 시조가 강조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2. 이 시조들에서 언어의 음과 의미가 교묘하게 연합함으로써 의미의 표현 효과가 높아진 것을 찾아 설명해 보자. 3. 세 작품을 소리내어 낭독해 보고 울격에 대하여 다음을 공부하자. (1) 소리내는 데서 어떤 규칙이 발견되는가? (2) 종장의 두 번째 마디가 5~7자로 된 것은 낭독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 5. 세 작품 가운데 음과 의미가 가장 잘 조화된 작품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김 대 행 외 (하)	교학사	3. 문학의 다양화와 담당층의 확대 - 조선시대의 문학 (2) 장백산에 기를 씻고 외	· 잔들고 혼자 안자 · 어리고 성근 매화	윤선도 안민영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다양성을 파악하면서 읽는다. · 시조 형식의 우수성을 즐기면서 읽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시조 작품이 무엇을 노래한 것인지 살펴보고, 이 밖에 다른 유형의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윤선도의 시조에서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라는 말은 무슨 뜻을 함축하는가? (2) 안민영의 시조에서 매화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3. 각 시조의 내용과 표현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각기 지닌 특색을 찾고, 그러한 특색이 삶과 어떤 관계가 있겠는지 생각해 보자.
--	---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남 미 영 외 (상)	동 아 서 적	3. 시와 심상 (1) 오우가	· 오우가	윤선도

학 습 목 표	학 습 내 용 (활 동 · 문 제)
<p><해제> 인조(仁祖) 20년(1640년)에 지은 고산(孤山) 윤선도의 ‘산중신곡(山中新曲)’에 수록된 시조이다. 이 시조는 모두 6수로 구성된 연시조이다 서사(序詞)인 첫 수에서 산 속의 자연물들인 물[水], 돌[石], 소나무[松], 대나무[竹], 달[月]을 다섯 벗이라 말하고, 그 벗들의 특성에 대하여 각각 한 수씩 그 특성을 이미 지화한 노래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우가’는 다섯 가지 자연물을 비유하여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했다. 어떠한 인간상인지 말해 보자. 2. 이 시조의 첫 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 3. 이 시조가 제시한 물의 부단, 바위의 불변, 소나무의 늘 푸름, 대나무의 곧음, 달의 침묵 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시조의 주제를 요약해 보자. 4. 소나무와 물은 우리 나라 시조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이다. 소나무와 물이 나오는 시조를 찾아보고, 상징하는 바를 말해 보자 5. 우리 나라 시조에는 달이 많이 나온다 시조를 읽고 달은 무엇으로 상징되고 있는지 열거해 보자.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남미영 외(하)	동아서 적	1. 한글 문학의 시도와 시가 의 발달 (1) 관조와 사랑의 노래	· 秋江(추강)에 밤이 드 니	월산대 군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해제>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는 성종(成宗)의 친형이 지은 정형시조로,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잔잔한 서경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p>		<p>1. 월산대군의 시조를 현대어로 풀이해 보자.</p> <p>2. 월산대군의 시조에서 '무심한 달빛'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p> <p>5. 이 시조의 주제를 간단히 말해 보자.</p>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구인환 외(상)	한샘 출판	1 언어와 심상 (2) 시의 대상과 상황 · 어부사시사	· 어부사시사	윤선도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노래의 각 연에 나타난 계절적 어휘를 파악한다 · 이 노래를 통하여 '후렴구'의 시적 기능을 알아본다 · 자연에 대한 인식이 이현보의 「어부가」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p>1-1 「어부사시사」에서 화자가 시의 대상인 자연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어떠한지 알아보자.</p> <p>2-1. 「어부사시사」의 각 장(章)별로 자연에 대한 묘사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p> <p>3-2. 자연적 대상을 소재로 삼은 다음 시들을 더 읽어 보고, 위 두 작품들과 비교해 보자.</p> <p>(1) 정극인, 「상춘곡(賞春曲)」</p> <p>(2) 김동환, 「산넘어 남촌에는」</p> <p>(3) 정지용, 「향수」</p>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구인환 외(하)	한샘 출판	3 근세의 문학 (2)시조	· 靑山은 어찌하여 · 십년을 경영하여 · 어리고 성근 매화	이황 송순 안민영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조의 양식적 전형을 알아본다 · 시조에 투영된 미의식과 가치관을 음미해 본다. 		<p>1-1. 본문의 시조들을 다음 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주제 의식의 분포를 살펴보자</p> <p>(1) 유교의 이념의 표출 (2) 자연 친화의 서정</p>		

		1-2. 시조의 변모 과정을 작가층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2-1. 본문의 각 시조의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어나 구절들을 찾아 보자. 2-2 다음 표현들은 어떤 독특한 문학적 효과를 자아내는지 그 의미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2)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 혼 간 맞져 두고' 2-3. 이황과 송순의 시조에 나타난 자연관을 비교해 보자.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김대행 외 (하)	교학사	3. 문학의 다양화와 담당층의 확대 - 조선 시대의 문학 (3)상춘곡(賞春曲)	· 상춘곡(賞春曲)	정극인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 무엇을 노래한 것인지 이해하면서 읽는다 · 표현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읽는다 · 이러한 태도가 형성된 배경을 추리하면서 읽는다.		1. 이 작품의 표현을 중심으로 다음을 공부하자. (1) 고유어 가운데서 멋있게 느껴지는 것을 골라 그 까닭을 생각해 보자. (2) 이 작품이 낭독하기에 편한 까닭은 무엇인가? 2. 이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을 공부하자 (1) 작품 속 화자가 완상(玩賞)하는 대상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3. 이 작품에 나타난 미의식을 중심으로 다음을 공부하자. (1) 작품 속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한 마디로 요약해 보자. (2)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떤 미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가?		

		<p>4. 정철의 '관동별곡'과 '문학(상)'에서 읽은 정철의 '사미인곡', 작자 미상의 '우부가' 등을 '상춘곡'과 연관지어 다음을 공부하자.</p> <p>(1) 가사 양식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제재의 다양성을 설명해 보자.</p> <p>(2) 판소리 사설과 다른 점을 무엇인가?</p> <p>5. 이 작품이 보여 주는 자연과의 조화라는 태도가 조선 시대의 문학에서 얼마나 두드러진 흐름을 이루었는지, 지금까지 읽은 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p>		
저자	출판사	소단원명	작품명	작가
김용직의 (하)	대일도서	1 시가 문학의 이해와 감상 (5) 풍류와 순수 생명 의식의 서정 · 면앙정가(倓仰亭歌)	· 면앙정가	송순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조선 시대 선비들의 풍류를 담아내고 있던 시가 형태의 하나로 가사를 들 수 있다. 가사는 주로 자연과 벗삼아 떠오르는 흥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조선 시대 선비들이 갖고 있던 시 정신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가를 중심으로, 조선 시대 가사에 나타난 풍류에 대하여 알아보자.</p>		<p><토의 학습></p> <p>1. 이 가사를 현대어로 풀이하여 말해 보라.</p> <p>2. 이 가사의 운율상 기초가 되고 있는 언어 사용상의 특징을 말해 보라.</p> <p>3. 이 가사에 담긴 풍류의 본질을 정리하여 말해 보라.</p> <p><개별 학습></p> <p>1. 이 가사의 장르적 성격을 다음 측면에서 시조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라. (1) 외적 형식 (2) 운율 (3) 작가 정신</p> <p>2. 가사의 국문학사적 의의를 조사해 보라.</p> <p>● 종합 학습</p> <p><토의 학습></p> <p>1. '풍류'란 무엇이며, 풍류를 내용으로 삼은 시가 현실을 내용으로 삼은 시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라.</p> <p>2. '한림별곡'에 담긴 풍류와 '면앙정가'에 담긴 풍류를 비교하여 말해 보라.</p>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이 문 규 외 (하)	선영사	3. 조선 전기의 문학 (4) 夢遊錄과 소설의 등장 · 면앙정가(倓仰亭歌)	· 면앙정가	송 순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해제> 작자가 만년에 고향인 전라남도 담양에 은거하며 제월봉(霽月峰) 아래 면앙정을 짓고 그 곳의 빼어난 경치와 자신의 풍류 생활을 읊은 가사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호연(浩然)한 기상이 잘 나타나 있다</p>		<p>1. 이 작품은 시상의 전개상 몇 부분으로 나뉘어지는지 말해 보자.</p> <p>2. 이 작품의 운율적 특성을 말해 보자.</p> <p>3.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 보자.</p> <p>4. 이 작품의 가사 문학상의 위치를 말해 보자.</p>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오 세 영 외 (상)	천재교육	3. 중세 후기 문학 (5) 가사에 나타난 삶의 방식 · 면앙정가(倓仰亭歌)	· 면앙정가	송 순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지은이가 41세 때 고향인 담양의 제월봉 아래에 면앙정을 짓고,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의 절경과 자신의 풍류 생활을 읊은 가사이다.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에서 시작되는 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으로, 정철(鄭澈)의 가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p> <p>·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삶이 모습을 살펴본다.</p> <p>· 이 작품이 정철의 가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p>		<p><확인문제></p> <p>1.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p> <p>2. 이 작품의 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내 보자.</p> <p><연구문제></p> <p>2. '면앙정가'는 '속미인곡'과 비교해 볼 때, 그 울격이 매끄럽게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준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알아보자.</p> <p><토론과제></p> <p>1. '면앙정가'를 기초로 하여 인간의 삶에 있어 자연이 지닐 수 있는 의미에 대하여 말해 보자</p>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성 기 조 외 (상)	학문사	1. 시가 문학의 이해와 감상 (1) 소리와 운율 · 면앙정가(俛仰亭歌)	· 면앙정가	송 순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해제> 작자가 41세 때 고향인 전남 담양에서의 생활을 읊은 서정가사 '상춘곡'의 영향을 받고, 뒤에 송강(松江)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준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전통을 잇는 작품이다</p>		<p>1. '면앙정가'를 읽고 다음 붙음에 답해 보자.</p> <p>(1) 이 가사의 운율상 기초가 되는 언어 사용의 특징을 찾아보자.</p> <p>(2) 가사의 운율이 향가, 경기체가, 시조의 운율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p> <p>(3) 이 작품에 지은이의 자연관과 풍류적 삶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자.</p> <p>(4) 조선 전기의 가사 문학이 전개되는 양상을 도표로 그려 보자.</p> <p>2. 다음에 관해 토의해 보자.</p> <p>· 가사는 운문인가, 산문인가? (각각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발표한다.)</p>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최 동 호 외 (상)	대한교과서	2 자연과 향수 (2) 면앙정가(俛仰亭歌)	· 면앙정가	송 순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 자연의 흥취를 즐길 줄 아는 선인들의 삶의 정서를 이해한다.</p> <p>· 가사 문학의 발전 과정을 통해 면앙정가의 장르적 특성을 안다.</p>		<p>2. '면앙정가'의 내용은 몇 개의 의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의미 단락이 지닌 작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p> <p>3. '면앙정가'는 자연의 경치를 여러 가지의 수사(修辭)를 통해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연의 경치를 묘사하기 위해 어떠한 수사적 표현들이 동원되고 있는지 알아 보자.</p>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박 경 신 외 (하)	금 성 출 판사	2. 내용과 주제에 따른 감상 2-2. 자연과의 교감 · 면앙정가(俛仰亭歌)	· 면앙정가	송 순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p><해제> 면앙정(俛仰亭) 주위의 경관과 그 속에서 한가하게 노니는 풍류 생활을 노래한 서정성 짙은 가사로,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영향을 받고 송강의 작품에 영향을 준 작품이다</p>		<p><연구 학습 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작품을 여섯 단락으로 나누어 보고 각 단락이 내용을 말해 보자. 2. 이 작품에서 조선 전기 시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자. 3. 이 작품이 가사 문학에서 차지하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자. <p>[학습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시에 있어서의 사상과 정서는 일차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촉발되는지 말해 보자. 1-2. 자연을 대상으로 한 우리 시들을 효과적으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지 말해 보자. 1-3. 내용과 주제라는 측면에서 현대시에 와서 자연이 새롭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말해보자. 2-1. '면앙정가'를 예로 들어 '강호가도(江湖歌道)'를 설명해 보자. 		
저 자	출판사	소 단 원 명	작 품 명	작 가
김 열 규 외 (하)	두산	4. 문명 비판과 자연의 서정 (2) 자연 친화의 시 · 면앙정가(俛仰亭歌)	· 면앙정가	송 순
학습 목표		학습내용(활동·문제)		
· 이 시에 나타난 서정적 자아의 '자연관'을 생각하며 읽자.		1. 자연은 인간의 삶과는 별도로 언제나 문학의 보편적인 소재가 되어 왔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의 의미는 지대하고 또 중요하다. 우리의 시문학 역시 자연에 대한 친화 사상과 그에 침잠하여 인생관을 형상화하는 작품을 많이 산출하였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이 창작한 자연 서정의 시들에서는 노동의 땀 냄새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많이 있다. 그 비판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 현대 사회에서의 자연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자연이 주는 정신적 자양에 대해 생각하며 읽자

2. '면앙정가'는 정극인이 지은 '상춘곡(賞春曲)'의 영향을 받고, 정철(鄭澈)의 '성산별곡(聖山別曲)'에 직접 영향을 끼쳐 그 모체가 되었다. 수사(修辭) 면에서는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 중의 일부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영향 관계에 대해 말해 보자.

3. '면앙정가'를 읽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해 보자.

- (1) 이 작품에 나타난 풍류 정신을 자연 친화 사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자.
- (2) '가사(歌辭)'의 장르적 특성을 이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보자.
- (3) 이 작품에서 각 계절을 대표하는 경치를 간단히 적어 보자.

